

나의 꿈과 만나다

2014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과 만나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1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 최하나 Buying MD ... 07

02

많은 것에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 이재영 농부 ... 17

03

뭐라도 하자, 지금 당장!

• 김수강 대한민국밥 점주 ... 27

04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엔 자신감이 필요하다

• 남휘현 기타리스트 ... 39

05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자

• 김한성 디자인스튜디오 대표 ... 51



06

꿈이 있다면 물어보고 답을 찾아 행동하라

• 한윤선 영화감독 ... 61

07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은 자존감을 만든다

• 김희영 온라인 모바일 게임 마케터 ... 71

08

자연과 사람에게 모두 유익하게

• 신준수 낙농업자 ... 83

09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곧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다

• 주하늬 농부 ... 93

10

세상에서 혼자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 백마강 영화 조감독 ... 103



11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야 후회가 없다

• 김정민 건축설계사 ... 117

12

행복이란,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 강요섭 현대무용수 ... 129

13

타고난 개그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다

• 김진 개그맨 ... 141

14

실패를 경험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 정세진 엔젤리너스 점주 ... 155

15

대안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 한성호 창업가 ... 165

01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을 토대로 바이킹(buying)MD가 된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Buying MD

최하나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 온라인 쇼핑몰 운영, 런던 유학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바이닝(buying)MD의 길을 걷게 된 여자

-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남성복 브랜드를 수입하기 위해 컬렉션이 열릴 때 해외에 나가 주문, 계약, 통관 절차 등을 밟고 국내에 유통 되기까지의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함

- **꿈을 이룬 과정** 일반 중학교에 다니던 중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선생님들의 태도에 실망하여 대안학교 입학 결심→대안학교 금산간디학교 진학→서울 여성영화제 마케팅팀에서 인턴십→공연기획 관련 대학에 진학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둠→1년 간 온라인 쇼핑몰 운영→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영국의 런던예술대학(University of Art London)에서 4년 간 유학 생활→귀국하여 <더블유컨셉(W-concept)>이라는 회사에서 1년 간 마케팅 관련 일을 담당→현재 <디스클로우즈>로 회사를 옮겨 마케팅 업무를 담당

- **그의 한마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일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려한 조명과 다양각색의 의상을 차려입은 모델들이 걷는 런웨이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의상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 바이킹(Buying) MD 최하나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여러 브랜드 컬렉션을 찾아다니며 의상들을 살피고, 수입할 제품을 선택해 주문, 계약, 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이 그녀의 손에 달렸다.

최하나씨는 성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학교문화가 싫어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대안학교 금산간디학교는 그런 그녀 스스로가 찾은 ‘대안’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간 그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며 살아왔다.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의 차이를 남들보다 일찍 깨닫고 보다 빨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금의 자리에 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선생님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하나씨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공부에 열심이던 그녀는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고, 그로 인해 선생님들은 늘 그녀에게 관대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그런 선생님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의 차별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났죠. 한창 정의감이 넘치던 사춘기 중학생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 즐겨보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꿈의 학교’라고 소개하는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때마침 몇 군데 일반 고등학교를 두고 선뜻 결정하지 못해 고민 중에 있었던 그녀는 흥미로운 간디학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그녀의 확고한 마음 못지않게 부모님의 반대도 컸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물려서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가 정한 수준으로 성적을 올리면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디학교에 다니고 싶어 어머니의 조건에 따라 정말 성적을 올렸죠. 나중에 들으니 제가 진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단념시키려고 제안하셨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어머니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허락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사춘기 이후로 대화를 하지 않던 제

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을 해주셨고요.”

간디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선택이었기에 늘 무슨 일든지 열심히 했어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부모님께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며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갔죠

하나씨의 대안학교생활은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니던 당시 간디학교의 이름은 ‘간디자유학교’였는데, 이름처럼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워갔다.

“학교생활을 통해 선생님들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일반학교의 교육방식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는 간디학교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간디학교에는 동아리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도 있었다.

“선생님께 수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해와서 진행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학생들끼리 공부할 부분을 나누고, 수업시간에 서로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발표를

하며 공부하는 방식이었죠.”

그녀는 앞장서서 친구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원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 축제를 할 때도 그녀는 축제 무대에 서서 주목을 받는 것보다, 축제를 어떻게 할 지 계획을 세우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그녀가 공연기획이나 예술경영 쪽으로 나아가 갈 방향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었다.

“같은 학년에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늘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제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창작자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문서작업이나 정리정돈하는 일은 좋아했고, 또 제법 잘 했어요. 저는 ‘예술가는 될 수 없지만 이 능력을 개발하면 예술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을 구분 짓는 방법을 좀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제가 잘하는 능력을 키워온 것이죠.”

대학을 그만두고 시작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공연기획이나 예술경영 관련 일에 관심이 많았던 하나씨의 뜻에 따

라 학교에서는 그녀가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3학년이었던 그녀는 서울 여성영화제 마케팅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인턴십에 참여한 다른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대학 진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인턴십을 하며 대학생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죠.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깐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ですよ. 학교든 아카데미든 들어가서 배우며 경험을 쌓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공연기획을 배울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지만 수업은 배우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공연기획이나 예술경영을 배울 수 없는 대학을 더 다닐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1년 만에 대학을 그만뒀다. 근처 학교의 학생들이나 동생 친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가며 온라인쇼핑몰 오픈을 준비했죠.”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브랜드가 매우 인기가 좋던 시절, 그녀는 주로 빈티지 청바지를 팔았다.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면 무조건 잘 팔릴 것이라는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일 년 정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장사를 하며, 상품구성도 중요하지만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쪽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유학을 준비하는 시간과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수업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씨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익힐 수 있는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유학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영국의 런던예술대학(University of Art London)에 들어가 마케팅과 광고, 미디어와 문화연구를 복수전공으로 하여 다양한 공부를 시작했다.

“패션 디자인 분야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전공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패션 매니지먼트와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어려워서 유학을 갔어요.”

그녀의 유학생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성적만을 가지고 영국의 대학에 들어갔던 그녀가 첫 학기부터 낙제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듣고, 소통을 하려다보니 그녀만 과제를 잘못 내는 경우도 있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녹음도 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무작정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했죠. 유학을 하며

정말 기뻐던 일은 과제를 내면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수업을 하시지 않는 교수님의 의견도 있었는데,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의 주관적인 평가 외에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죠.”

영국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3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신 한 해가 3학기로 되어 있어 방학이 짧고, 수업이 많았다. 그녀는 학교를 다닌 3년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다.

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바이(buying) 업무는 보통 컬렉션이 열릴 때 해외에 나가서 신진 브랜드들이나 국내로 들여오면 좋을 것 같은 브랜드의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문, 계약, 수입 등의 절차를 밟아 판매에 이르는 일을 아우르는 일이에요. 물건이 들어와 팔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 때부터는 홍보 마케팅에 집중을 하는데 아무래도 옷이고, 좀 고가의 수입브랜드들이다 보니까 협찬을 주로 하고 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하나씨는 <더블유컨셉(W-concept)>이라는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회사를 옮겨 지금의 <디스클로우즈>에 들어오게 된 지도 이제 8개월이 되었다. 그녀는 해외 남성복 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편집샵에서 바이(buying)MD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가 소속된 기획팀에는 그녀와 팀장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바잉 업무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가끔은 전략기획일도 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가 얼마 전 미국에서 꾸준히 수입을 했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금액이 많으면 그쪽 브랜드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수입을 하는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이 커지거든요. 세금을 줄이고자 그쪽 브랜드에서 실제 송금해야하는 금액보다 작게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도 내야 하는 세금이 50%도 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그런 관습을 고쳤어요.”

회사 규모가 작은 만큼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 철학은 대안학교에서 몸소 익혀온 자유로운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말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대안학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이 제게는 창피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감정표현에 솔직해져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02

경쟁력 있는 시골을 꿈꾸는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많은 것에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농부

이재영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산청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
- **하는 일은?** 농사와 함께 산청간디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꿈을 이룬 과정** 충남 금산 간디학교(대안학교)→다수의 아르바이트→군 전역 후 간디학교 법인 근무→산청 간디학교 해외이동학습(필리핀) 자원봉사 사감→농사 및 간디학교 강사 겸임
- **장래 포부** 시골의 먹거리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사이클을 지역민들과 구축하는 것
- **그의 한마디** 많은 것에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영씨는 국내에 세워진 7개의 간디학교(대안학교) 중, 3번째로 세워진 금산 간디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다. 중학생 때 방황을 하기도 했던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지향하며 독립을 꿈꿨다. 학교 졸업과 군 제대 후 그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와 간디학교 근무 등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농사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농약을 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농사법을 추구하는 친환경농부이자 간디학교에서 농장수업을 하고 자전거를 통한 여행 프로젝트를 이끄는 강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경험한 그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만큼이나 스펙터클했다.

처음엔 대안학교에 절대 안 간다고 했죠

김해에서 살던 중학생 재영씨의 자유분방한 생활은 늘 부모님을 걱정케 하는 문젯거리였다. 평범히 김해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던 그와는 달리 그의 부모님은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았다.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간디학교를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싫다는 아들과 한번이라도 가보자는 아버지의 치열한 싸움 끝에 재영씨는 입학 전 대안학교를 체험해보는 예비학교 캠프를 찾았다. 원래는 경남 산청에 세워진 간디학교를 지원했지만 떨어지고서 그가 가게 된 곳은 금산에 있는 간디학교였다. 체험예비학교에 와서도 그의 계획엔 대안학교 진학은 전혀 논외의 일이었다. 그저 3박4일간 또래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가는 것뿐이라는 그의 생각은 캠프가 끝나갈 때 바뀌었다.

“밥 해주는 아줌마, 청소해주는 아줌마들이 몇 분 있을 뿐 학교에 선생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분들이 선생님이란 걸 알게 됐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전혀 살갑지 않고 권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반대의 선생님이란 걸 알고서 감동을 받고 대안학교에 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대안학교 1년 만에 그만두려 했어요

금산 간디학교에서 그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친구들과의 유대감도 늘어났고, 선생님들하고의 거리감도 없었기에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재영씨의 입학과 맞물려 신설된 금산 간디학교는 그 당시 학교 건물 자체가 없었다. 폐교를 빌려서 한 달 지내기도 하고, 한 달 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힘든 경험을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재영씨는 학교를 다닌 지 1년 만에 간디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간디학교가 좋긴 했지만 자신감이 생겼으니 이제 일반학교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들의 부당한 체벌이나 잘못된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향(김해) 친구에게 부탁해 주유소 일자리도 구했죠.”

1년 동안 자유분방하게 거침없이 살았으니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들의 선언을 부모님은 크게 반대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학교를 안 가는 대신 한 달 동안 지정해준 작업장에서 일을 하라고 말했다. 그곳은 아버지 지인이 김해에서 운영하는 돼지 농장이었다. 간디학교에는 체험 학습을 한다 말하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돼지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의 일은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케이지 안에 갇힌 80마리의 돼지 냄새는 코가 아플 정도로 지독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거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로(주로 중국의 한족, 연변족) 각종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혼자 직원 기숙사에서 지내는 일이란 외롭고 힘든 일이었다. 그가 한 달의 일을 마치고 돈을 벌어서 새 옷을 입고 찾아갔던 금산 간디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재영씨를 환대해주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있을 자리가 그곳임을 깨닫고 학교에 남았다.

스무 살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청한 인턴십에서 방송 코디네이터들을 따라다니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패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대학이란 곳은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다고 결론지은 그가 졸업 후 한 것은 돈을 버는 일이었다.

“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독립을 하더라고요. 그게 멋있어 보였고 제 자신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죠.”

목수 일, 레스토랑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800만원을 모은 그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고향이 아닌 자신이 직접 고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좋아했던 대구에 내려가 일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적으로 한다는 직업 정신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뚜렷한 진로는 없었지만 자신의 커다란 목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던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군 입대를 해야 했다. 그때까지 남자들의 상하 관계나 유대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는 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고 군대 시스템 안의 자신을 보는 게 익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그는 무사히 전역하였다.

그의 나이 스물셋에 군 제대 후 사회에 나온 그는 간디학교 법인 쪽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법인에서 일을 하던 그는 법

인에서 준비하는 필리핀 해외 캠프 자원 봉사를 떠나게 됐다. 필리핀에서 1학기를 경험한 그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에 법인을 그만두고 산청간디중학교의 해외이동학습 자원봉사 사감으로 한 학기를 더 보냈다. 간디학교 법인에서 일을 하던 그는 간디학교에 교사로 부임해있던 현재의 아내를 만나는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군 제대 후 주변 사람들이 먹거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뭘 하면 좋을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는 전역 후, 주변 사람들의 먹거리 얘기에서 진로에 대한 힌트를 찾았다.

“군 입대 전까지 농사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생협, 친환경 먹거리 같은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죠. 그런데 전역을 하고서 사람들을 만나면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청 간디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던 그는 산청에 있는 500평 정도의 논농사를 해보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농사짓기를 결정했다. 스물다섯 살에 처음 시작한 논농사는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이지만 그는 농부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사람은 죽지 않는 이상 먹어야 살고, 내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팔면 그것이 안정적인 돈을 버는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

어요. 서울 사람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회한하단 생각을 하며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하면서 먹거리와 농사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단 것을 알았죠. 농사를 하면 쉬운 수확을 위해 약을 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유기농이 힘들지만 결국 소비자는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영씨와 같은 농부들이 적은 양을 농사짓더라도 제 값에 팔려면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는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 직접 생산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 접점을 만드는 사이클을 운영하고 싶단 생각을 밝혔다. 작은 시골에서의 삶은 그에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시켰다.

“요즘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시골 땅 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택난도 심해요. 이런 문제점을 실생활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 내가 도시에 살면 전혀 관심도 없을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부분들로 계속 신경 쓰이게 되죠. 시골에서 살다보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요.”

시골에서 젊은이들에게 농사를 지으러 오라고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이 되는 도움은 정작 받기가 어려웠던 그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젊은이들의 시골 정착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많은 것에 가능성을 두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디학교가 아니었다면 농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간디학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의도치 않게 빈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죠.”

비워진 시간동안 진로나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뭐든 좋으니 적성을 찾아보라고. 꿈 자체가 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럽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많은 부분을 열어놔야 좋겠어요.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의 구분 같은 것 없이, 내가 또 남들을 따라하는구나 같은 생각 버리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도전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도시에 모든 기준을 두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시골에도 많은 기회가 있단 것에 눈을 뜨면 좋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도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반대로 시골에서 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단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자부하였다. 수 십 년 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자신의 미래를 기대한다 말하는 그의 두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03

계란빵 장사로 시작해 국밥집 주인이 된 금산간디학교 졸업생

뭐라도 하자, 지금 당장!



대한국밥 점주

김수강

● **누구의 이야기?**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계란빵 장사 시작, '청년장사꾼'을 거쳐 프랜차이즈 국밥집 1호점 점주가 된 남자

● **하는 일은?** 대한국밥집 점주

● **꿈을 이룬 과정** 대안학교 탐방 후 간디학교에 입학→성공회 대학교 유통정보학과 입학→대학 3학년 때 트럭 사서 계란빵 장사 5개월→가리고리(직업 나눔 인터뷰)에서 근무→'청년장사꾼'에 입사, 4학년 2학기에 '열정감자'에서 근무→프랜차이즈 국밥집 동업으로 시작→대한국밥 1호점 점주

● **장래 포부** 본인만의 장사를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성격도 바뀌어 진다



대안학교를 선택하기까지

김수강 씨는 중학교 시절 여자 짝한테 연필 빌려달라는 한 마디를 못 해서 하루 종일 필기를 못할 만큼 소극적인 학생이었다. 중학교 3학년 이 되어 진학을 선택해야 할 즈음 부모님은 그에게 일반 인문계 학교, 조리고등학교, 대안학교, 인터넷학교, 실업고등학교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셨다. 그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러 일주일 간 휴가를 낸 아버지와 함께 그는 대안학교 두 군데와 조리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탐방해보았는데 그 중 간디학교가 가장 그의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신발을 건네주는 간디학교 선배의

모습 인상적이어서 간디학교를 다니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조리고등학교에 가기를 은근히 바라셨던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이면 주말농장학교에 보내는 등,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였다. 그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대안학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아들이 가는 곳이라는 소문에 내심 걱정을 했던 그의 눈에 비친 선배들의 모습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 형들이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절대 강요하는 법은 없었죠. 그 뒤 큰 행사가 끝나면 선생님, 학부모들 함께 모여서 맥주 한 캔씩 마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니깐요. 금연위원회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 명단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금연을 시킬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죠. 무조건 ‘너 하지 마. 혼난다.’하고 으박지르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던 공동생활

소극적인 성격으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던 김수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학생들끼리 회의를 하는 ‘식구들의 솔직한 회의’라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매일 보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과 앞에서조차 발표하기가 힘들었다. 선생님께서 ‘수강이가 이야기를 한번쯤 해야겠다.’ 하시면서 일부러 안건을

만들어 이야기하게 만드셨을 때는 너무 긴장한 탓에 식은 땀을 흘렸을 정도였다. 그만큼 그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나와는 너무 다른 친구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번은 친구를 붙들고 펄펄 운적도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건 너무 나쁘고 커다란 죄악처럼 느껴지는데 친구가 담배 사러 간다고 하길래 붙잡고 울면서 ‘담배 피지 마’했죠.”

그가 6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다가 너 대학은 갈 수 있겠나?’, ‘너 인생 어찌려고 그러냐?’며 걱정을 했다. 잘 가르친다는 학원을 옮겨 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야간지습을 하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밖에 없던 친구들에게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던 것이다.

간디학교는 1학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한다. 명상에서부터 흡집 짓기, 40일간의 국토순례, 2학년 때는 3개월 동안 호주에 다녀오기도 한다.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그는 점점 달라졌다.

“3년 내내 방학이면 해외로 워크캠프를 가기도 했어요.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 나라의 일을 체험해보는 캠프였는데, 필리핀에서 쓰레기도 줍고 망고를 따기도 하고 그 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주기도 했죠.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가고 싶은 학과 교수님 찾아가기

김수강 씨가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총각네 야채가게』라는 책을 한 권 주셨다. 그 책을 읽고 난 그는 고3 여름방학 때 ‘총각네 야채가게’가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봤다.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신기했다. 책을 읽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가게와는 사뭇 달라보였다. 그때 ‘장사가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조금 더 공부하고 장사를 해보아겠다는 결심을 했다.

학교는 당시 가장 대안적인 대학교라고 생각되었던 ‘성공회대학교’로 결정하고 전공은 진로상담 선생님과 상담한 후 장사를 배우기 위해 유통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는 3개월 동안 수능공부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재미있을 리 없었다.

“대안학교 전형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간디학교는 있는데 ‘간디 자유학교’는 전형대상 학교에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성공회대학교 유통정보학과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하고, 찾아갔죠. 입학을 하려면 수험공부를 하라던 교수님께 대안학교 전형에 왜 우리학교는 없냐고, 5분 면접으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의면접 자리를 마련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그에게 유통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 아직 이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그가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어

머니에게 엄청 혼이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매일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그는 어느 날 대안학교 전형 대상에 ‘간디자유학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헛걸음만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팀 프로젝트나 발표를 할 때 대안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던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군대 갔다 와서 토익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며 계란빵을 팔다

“3학년 2학기 때 ‘생산관리’라는 수업을 듣는데 후배들이 트럭으로 계란빵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장사를 조사하고 분석하다 보니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마침 후배들이 트럭을 판다고 하기에 얼른 내가 사겠다고 말해놓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방학 동안에만 경험삼아 하겠다고 하니 6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후배랑 둘이 60만 원씩 120만 원 만들어서 트럭 100만 원에 사고 20만 원으로 재료를 사서 무작정 시작했죠.”

한겨울에 노점으로 시작한 장사.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아무 허가 없이 열었다가 영화에서처럼 단속반이 달려와 막 엎어버리지는 않을까 김수강 씨에게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배짱이 좋던 후배가 ‘안 되면 그냥 가면 되지’라고 한 말에 힘입어 첫날 장사를 시

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준비해간 것을 다 팔았다. ‘진짜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만든 게 팔리는구나’ 싶어 그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침 7시에 나가 지하철역 앞에서 팔기도 하고 아파트 장터에 들어가 팔기도 했다. 공무원 단속에 걸려 범칙금 우편물이 날아오는 날도 있었다.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가서 계란빵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허가 받기가 무척 힘들었죠. 경영학과 학생인데 수익의 10%를 기부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겨우 허가를 받아냈어요. 학교에서 하면 무조건 장사는 된다고 봐야 해요. 오후 3시까지 장사하다가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주면서 장사를 맡기고 수업에 갔다 오곤 했어요.”

처음으로 그가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기도 했다. 5개월 정도 계란빵 장사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져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트럭을 팔던 날, ‘가리고리’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이 왔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 유튜브에 올려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회사였는데 사람 만나는 일이 좋아졌던 그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런데 몇 달 해보니 수익구조도 불안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장사를 하고 싶었다.

“가리고리 일을 할 때 마케팅 관련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청년장사꾼’ 대표를 만났어요. 그 대표가 총각네 야채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각네 야채가게’를 보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장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장사꾼을 모집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장 지원을 했죠.”

4학년 2학기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경북궁에 있는 ‘열정감자’라는 곳에서 장사를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달려가야 하는 피곤함도, 임금이 적은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는 손님과 대화하는 것, 손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계란빵을 팔던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장사를 잘하는 친구를 보고 따라하면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가게 되었다.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장으로 서 단 한 번 발표를 하기 위해 한 한기 동안 스피치 학원을 다녔던 김수강 씨가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웃으면서 신나게 장사를 했던 것이다. 지금도 학교 친구들은 그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의외라며 놀라워한다.

27세, 내 장사를 시작하다

김수강 씨는 ‘청년장사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의 장사가 더욱 하고 싶어졌다. ‘청년장사꾼’을 그만둘 때 아버지에게, 자신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고 싶다고 말을 했었던 그였다. 아버지는 취업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창업을 하라고 하셨고 그는 정말 그래 보려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려고 쓰는 이력서에서 취업하고 싶은 절실함이 묻어날 리가 없었다.

이력서를 쓰는 시간조차도 아까웠던 그는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시작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계란빵 장사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 때도 인사만 드리고 나와서 장사를 했고 너무 추웠던 날도 쉬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놀라셨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장사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동업은 반대하셨죠.”

그의 의욕은 반대하던 아버지가 먼저 두 손을 들 만큼 대단했다. 계란빵 장사를 하며 모은 돈과 적금 들었던 돈, 그리고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 「대한국밥」 1호점을 시작했다. 이는 선배와의 동업이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동업은 쉽지 않았다. 동업을 그만두었을 때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는 아픈 경험을 딛고 현재는 혼자서 ‘대한국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최연소 점주지만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고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시작한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조만간 다시 자신만의 장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열심히 영업 하고 있다.

“가맹점이라고는 하지만 1호점이라서 그런지 본사에서 레시피만 주고 아무 지원이 없었어요. 새벽 2~3시까지 무를 썰고 깍두기를 담그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허다했죠. 나이가 든 이모들을 고용하면 편할 거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복날이면 수박 돌리기를 한다든지 남

은 소주도 보관해 준다든지 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죠.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요리가 있으면 쉬는 날 친구들이 먹어 보고 이야기를 해 줘요.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싶으면 뭐든 하라고, 그런 권한도 주고요. 주 5일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죠.”

독학으로 하나하나 배워야 했던 시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헤쳐 나왔다. 조금씩 체계를 갖춰가는 지금은 차별화된 경영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최종목표는 장사를 잘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04

락앤롤 음악을 자신감 넘치게 들려주는 남양주 산돌학교 졸업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엔 자신감이 필요하다



기타리스트

남휘현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인디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남자

- **하는 일은?** 밴드의 일원으로 스스로 작곡, 작사한 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남양주 산돌학교(대안학교) 중등부 과정→5년 과정 수료 및 졸업→ 밴드 'THE ROOSTERS' 결성→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2014년 앨범 발매→음악 활동

- **장래 포부** 1960~70년대 유행한 로큰롤 음악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

- **그의 한마디**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엔 자신감이 필요하다

남휘현

기타리스트



남휘현씨는 2004년 설립된 감리교 대안학교 ‘산돌학교’의 2기 졸업생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인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는 대안학교에서 접한 밴드 활동을 통해 가수의 길을 걷게 된다. 대학 대신 기타를 선택한 그는 현재 인디밴드 ‘The Roosters’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196~70년대 로큰롤 음악을 연주하는 ‘The Roosters’는 2014년 8월 EBS 스페이스 공감 주최 신인 발굴 콘서트인 ‘헬로루키’에 입상하는 등 흥대 인디씬의 수많은 밴드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젊지만 자기주관이 확실한 기타리스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의 음악만큼 매력적인 일이었다.

교사였던 부모님의 제안으로 대안학교 체험을 갔죠

남휘현씨는 공교육의 한계를 느낀 교사 부모님의 소개로 남양주에 위치한 ‘산돌학교’를 찾았다. 공부도 끝났던 그지만 대안학교 입학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산돌학교에서는 ‘학교체험’이라고 학생들이 정식 입학을 하기 전, 2박 3일 정도 직접 학교생활을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도 학교에서 받지 않거든요. 제가 갔을 때 학교가 예쁘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입학을 결정했죠.”

그는 그렇게 ‘산돌학교’의 2005년 입학생이 되어 5년 과정을 이수했다.

학교는 경험 자체를 가르쳐 주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학교의 다양한 수업과 활동이 그의 그런 걱정을 없애주었다.

“대안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보단 다른 것들을 알려줬죠. 기독교 학교라 영성과 같은 종교 관련 수업도 있었지만 그것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학생의 관심분야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매해 국토순례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학교에선 여행을 통해 저희한테 고행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했죠.”

히말라야나 인도 등 여러 나라를 배낭을 들고 돌아다니던 여행은 그에게 있어 친구들과 추억을 만든 것 이상의 경험을 주었다. 힘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견문도 넓히고 다른 세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게 해준 것이다. 이런 체험은 훗날 그가 음악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큰 자산이 되었다.

짝사랑 그녀 때문에 기타를 치게 됐어요

공부도 끈질겼고,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그의 생각은 대안학교에서 만난 어떤 상대로 인해 180도 바뀌어버렸다. 짝사랑하게 된 그녀가 기타를 치는 연예인을 좋아한단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다.

“원래는 기타를 아예 못 쳤어요. 그런데 짝사랑하던 애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 애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내가 더 잘 칠 수 있단 걸. 그래서 딱히 잘하는 게 없던 와중에 기타를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덜 노력해도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소질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학교 밴드 동아리의 기타를 잘 치던 선배의 역할도 컸다.

“처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 준 형이었죠. 그 형을 많이 따랐는데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린 맘에 형 뒤편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선배가 별로 없었지만, 그는 친구

들과 함께 독학으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 시스템을 바꿨어요

산돌학교에서 생활한 5년 동안 그는 기타, 축구, 친구들과의 추억 등 다양한 추억을 쌓았지만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동아리 활동이었다. 풍물과 신문 제작, 밴드부 활동 등 여러 동아리를 거쳐 그가 졸업 때까지 쪽 활동을 했던 곳은 풍물과 밴드 동아리였다. 공연을 많이 하고 싶던 그는 동아리 시스템을 바꾸고 학교 축제를 개설하는데 일조했다.

“학교 밴드부에 악기도 별로 없고, 멤버도 적었어요. 축제 때 공연하는 멤버가 항상 정해져있고, 잘하는 애들과 배우는 애들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학교 안이지만 레이블을 만들어서 밴드 만들기를 장려했죠. 동아리 안에서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맘에 드는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라고요. 제가 4학년 때엔 밴드가 4개 정도 됐어요. 나중엔 레이블 쇼도 만들어 공연을 했죠.”

그가 학교 측에 제안서를 써서 만들었던 ‘동아리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축제가 되었다.

멤버 전원이 닭띠라 ‘The Roosters’(수탉들)이 됐죠

현재 휘현씨가 기타리스트로 속해 있는 ‘더 루스터스’의 나머지 세 멤

버들(보컬 겸 베이스 김진우, 하프 겸 오르간 이찬희, 드럼 황성민)은 그와 마찬가지로 '산돌학교'를 졸업했다. 친구인 그들이 대안학교 시절 함께 활동했던 밴드의 이름은 '배고파'(준x 배고파) 라는 밴드로 '더 루스터스'의 전신이었다. 2010년 그와 보컬의 졸업을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1년 뒤 다른 멤버들이 졸업을 한 뒤 멤버 재정비를 통해 현재의 '더 루스터스'가 탄생된 것이다. 멤버 전원이 닭띠였기에 이름을 수탉들로 지은 그들은 홍대 앞 클럽에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연 환경도 잘 모르고 무작정 인디씬에 뛰어들어 탓일까. 결성 초반의 공연들은 관객이 거의 들지 않았다.

“이 동네에(홍대) 공연하기 좋은 클럽들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클럽도 있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좋지 못한 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클럽들을 보면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데가 많은데 저희가 딱 19살이니까 성인이 되어야 그런 곳에서 공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관객은 없었지만 1년 동안 편하게 부담 없는 공연을 하면서 실력이 늘긴 했죠.”

'산돌학교'에서의 5년 과정이 끝나가던 해, 그는 학생이 원하는 직업 현장, 단체 등에서 직접 수업 및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들어야 했다. 그가 인턴십으로 선택한 것은 밴드였다. 밴드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한 그는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밴드 '문사이너스'를 따라다녔다. 홍대 인디씬에서 인디밴드의 활동을 지켜보며 그는 음악적 롤모델 차승우(밴드 모노톤즈의 기타리스트)를 만나고, 하고 싶은 음악 장르도 발견했다. 크라이닝트 같은 펑크 밴드를 좋아했던 그가 인턴십 때 따라다녔던 '문사이너스'의 로큰롤 음악을 듣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밴

드 선배들의 추천으로 영향을 받은 거장들의 로큰롤 음악을 들은 그는 1960~7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락앤롤 음악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새 애들은 랩에 더 관심이 많죠.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잖아요. 인디밴드들은 인기도 없고 대중도 잘 모르구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락앤롤 음악을 지향할 거예요.”

대중의 후원으로 두 번째 앨범을 만들 수 있었어요

2012년 1월 공식적인 데뷔를 하고서 밴드 ‘더 루스터스’는 2012년 싱글 앨범 발매에 이어 2년 만에 EP 앨범을 발매했다. 콘텐츠 제작 장벽이 높아 많은 아티스트들이 앨범 발매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앨범 발매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앨범을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대중들이란 사실이었다. 일의 시작은 그들의 공연을 본 음악 전문 커뮤니티 뮤직킹의 대표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앨범 제작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일단 싱글앨범을 하나 녹음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펀딩을 알려 보자라는 취지였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어요. ‘더 루스터스’ 앨범 프로젝트를 위한 목표 금액 500만원을 설정한 거죠. 그 사이트에

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앨범 제작을 성공한 최초의 밴드라더군요.”

거꾸로 읽으면 밴드명 루스터스로 읽히는 EP 앨범 ‘Ret’s Oor’는 휘현씨와 보컬 김진우씨의 곡들로 채워졌다. 발매한 전 곡을 작곡 및 작사로 참여한 휘현씨의 작업 방식은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음악을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제 경우엔 먼저 뭘 말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코드나 간단한 멜로디 후렴구를 떠올려요. 그 다음에 대주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부르면서 살을 붙이는 거죠. 미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무엇을 그럴지 생각하고 스케치 뒤에 색을 입히고 명암을 넣는 것처럼 제 방식대로 살을 계속 붙이는 거죠. 항상 핸드폰에 메모해 놓고 떠오른 멜로디를 녹음하기도 하면서 브레인 스토밍을 해요. 가사 같은 경우도 내가 사는 현실에 맞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가 음악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에서 겪는 여러 경험이 음악 창작에 있어서 중요하단 사실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경험에서 만들어진 ‘in the subway’나 ‘순환열차’, 학교 졸업 짝에 만들어 오래 공연을 한 ‘come to me’ 등의 자작곡들은 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곡이다. 현재 앨범으로 발표된 7곡 이외에도 그는 끊임없이 창작을 하고 있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락앤롤의 장점이지요. 울드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희 엄마도 좋아하세요.”

대학을 가지 않고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무척 슬퍼했어요

부모님이 먼저 대안학교 입학을 제안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그가 대학을 가지 않고 음악을 업으로 삼겠다고 말하자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다.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과 직업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식이 평범한 삶을 보내길 원했던 것도 컸다. 공부와 음악의 병행도 추천해보고, 싸워도 보고, 거듭된 반대에도 그의 결심은 확고해져, 결국 2010년 대안학교 졸업과 동시에 밴드를 결성했다. 멤버 교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2년 뒤인 2012년의 일이었지만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진 않았다.

EBS 음악방송 스페이스 공감에서 개최하는 ‘헬로루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신인들을 발굴해 콘서트 및 스페이스 공감의 방송 출연을 이뤄주는 오디션이다. 현재 인기가 많은 장기하, 국카스텐 등도 스타가 되기 전 거쳐 간 역사 깊은 무대에, 휘현씨의 ‘더 루스터스’ 역시 2014년 8월 ‘헬로루키’로 선정되었다. 결국 그의 공연을 본 부모님도 지금은 그를 전적으로 응원하는 팬으로 바뀌었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엔 자신감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대안학교에서 그가 배운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생활 그 자체였다.

“잘 사는 건 기준이 각자 다르지만 학교에선 ‘뭘’이 잘 사는 거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어요. 남들이 정한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그 일반적 기준에 대해 ‘저게 진짜 잘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죠.”

그런 교육 속에서 그는 공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생 공연을 하며 사는 것이 휘현씨 스스로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란 걸 알게 된 것이다. “음악 하는 친구들이 대학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교를 안가고 음악만 하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진학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이란 게 더 크게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내 이력에 한 줄 더 붙이고, 불안한 미래가 걱정돼서 나중에 기타학원 선생님이라도 하려고 가는 거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술 분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전했다.

“예술 활동은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분야는 너무 좁기도 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땅히 할 게 없으니 이거나 해야지란 생각은 안 돼요. 내가 선택한 이것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신의 쇼와 음악을 즐기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아직 하지도 않은 실수를 미리 걱정해 음악을 제대로 못 들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또한 성공에 초조해 하지 않고 쉬이 보이지 않는 성과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걸 그는 강조했다.

“여태껏 음악의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나 좌절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은 했죠. 선택한 일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만큼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맞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애초에 행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05

사회적기업 활동 후 디자인스튜디오를 창업한 산청간디학교 졸업생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자



디자인스튜디오 대표

김한성

- **누구의 이야기?** 일반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로 전학, 졸업한 후 사회적기업 등을 거쳐 디자인스튜디오를 창업한 남자

- **하는 일은?** 디자인스튜디오 BATON의 기획자 겸 대표

- **꿈을 이룬 과정**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자퇴→대안학교 입학→대학 입학(광고홍보과)→하자센터 근무→유자살롱(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씨즈(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디자인스튜디오 창업

- **장래 포부** 일상의 순간순간을 재밌고 알차게 살아가고 싶다

- **그의 한마디** 한가지 고민을 오랫동안 붙들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게 중요하다

-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ba-ton.kr)
 하자센터(<http://www.haja.net/>)
 씨즈(<http://www.theseeds.asia/>)

김한성

디자인스튜디오 대표



10개의 대안학교 졸업생 열다섯 명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옮겨 쓴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야』의 저자 김한성 대표. 그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야기와 디자인스튜디오 '바톤'을 창업한 과정에는 남다른 생각이 있었다.

명문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산골 대안학교로

김한성 대표는 음악과 관련된 연출이나 기획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획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가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부모님은 그가 망설이자, 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부모님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을 많이 시키시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노력하셨지만 부모님이 속한 세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제가 원하는 직업군이 서로 달랐죠. 예를 들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클래식을 해볼래?’ 하셨고 저는 음악에 관련된 다른 일을 생각했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간자습에 지쳐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해볼 겨를도 없는 명문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그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보고 있던 부모님은 그에게 대안학교를 권하셨다. 대안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학업에 부담을 느껴야 하는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간 대안학교의 첫인상은 황무지였다.

“제가 1기였으니까요. 주위에 슈퍼마켓 하나 없는 산속이었어요. 학생도 20명이 전부고요. 첫 6개월 동안은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폭풍처럼 휩쓸려 다녔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조금 지난 다음부터는 처음 만난 친구들과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게 생활했어요.”

4, 5시쯤이면 정규수업이 끝나서,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게 그는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동아리 활동, 새로운 수업 방식, 여유로운 자유 시간, 인간 관계 등 밀도 높은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부터는 정말 심심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할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대안학교에서는 무언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여유가 넘쳤어요. 땀들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뭘 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죠.”

스무 살까지의 경험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옳을까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3학년이 되니까 학교 밖 친구들에 비해 학업이나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슬슬 들기도 했다. 김한성 대표에게는 진로를 선택할 때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제대로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체계를 잡고 살자’가 대안학교의 기본 취지였기에, 그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결정해야 했다. 뭘가를 선택하려면 그 이유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불안감 때문에 대학에 간 게 사실이에요. 대학에 안 가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제약을 받을까 봐 그게 불안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스무 살까지 맛본 세계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경험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세상에 뛰어드는 게 망설여졌어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싶었죠.”

광고홍보과는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진로를 감안해서 선택한 전공이었다. 대학교 생활은 대안학교와 별로 다를 바 없었고 고등학교 때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았기에 공부는 오히려 재미있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몇몇의 친구들과 즐겁게 대학생활을 보냈다.

“반응심리학적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소비자 심리나 구매행동이론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광고 쪽이다 보니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때 파워포인트를 써봤던 것,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자센터에 입사해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진행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인 ‘하자센터’는 김한성 대표의 첫 직장이다. 대안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류가 있어서 이미 알고 있던 단체로, 취직할 시

기가 되어 입사 지원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했고 온라인 문화직업아카데미 일도 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스팀기계를 사용하니까 화상을 많이 입거든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도 못 바르고 손톱도 기르지 못하죠. 손님들이 보니까 문신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업에 따라 금지된 사항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리스타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죠. 정장을 입어야 하는지 넥타이를 매야 하는지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택은 아이들의 몫이지만 직업군을 더 넓게 보여주어 최대한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는 초빙된 패션모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학생 한 명에게 위킹을 시켰다가, 그 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가 맡았던 직업체험캠프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지속가능한 일,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균형 잡기

‘하자센터’에서는 직업체험교육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도 하고 있다. 인큐베이팅이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김한성 대표는 그중에서 3개

팀을 맡아서 하다가 그중 한 팀의 대표로 들어가 사회적기업(‘유자살롱’-유유자적살롱)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1년 반 정도 일을 하던 그는 다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씨즈’에서 3년 반을 일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을 쫓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력이 생겨 위치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일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 보고하는 일 등이 중심이 되어 갔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그가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워커홀릭(일중독)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은 생활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자신도 삶과 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너무 일을 좋아하셔서 가족과의 시간도 별로 갖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 저도 결혼 5년 차였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게 과연 맞는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한참 일할 때는 연락을 해와도 모임에 나가지 못하니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상의 순간순간을 재미있고 알차게 살다

김한성 대표는 그렇게 인생 전체를 재설계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다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창업 준비를 시작해 2014년 초에 바톤(BATON)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 전에는 기획자로서 사회적기업, 경제,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 일을 했다면 지금은 디자인이나 웹으로 분야가 좁혀졌을 뿐, 요구되는 역량에는 공통점이 많다. 창업 멤버는 디자이너인 아내와 같은 대안학교 출신인 후배, 이렇게 셋이었다. 회사를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가’였다.

“예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는 데 내가 무슨 기여를 했을까?’, ‘그 육성법이 만들어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등 사회적 임팩트만 생각했어요. 전쟁 같았죠. 이제는 뭔가 이루어내겠다는 욕심은 많이 줄었어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후회스러울까를 생각했죠. 결론은, 일상의 순간순간을 재미있고 알차게 사는 것이 후회를 덜할 것 같았어요.”

김한성 대표는 나중에 무언가 되고 싶기보다는 현재를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한다. ‘우리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 있다.

“월세 내기 힘들니까 집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일할 거 멋있게 일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해요. ‘나중에 매출이 어느 선까지 가면 애플모니터를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있

으면 지금 바로 사요. 간디학교에서 자주 듣던 말이 있었어요. ‘행복해 지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돼라!’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어떤 미래의 상태에 이미 와있다고 치고, 그런 상태가 멀었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들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무리해서 원하는 것을 마련하면 그 행동이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행복한 느낌을 주죠.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김한성 대표는 대안학교 졸업생으로서, 대안학교 출신인가 아닌가는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가지 고민을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맛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6

사람의 가치를 알고 영화를 만드는 양업고등학교 졸업생

꿈이 있다면 물어보고
답을 찾아 행동하라



영화감독

한윤선

- **누구의 이야기?** 비디오로 영화를 보다가 영화의 매력에 빠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온 남자

- **하는 일은?** 영화를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성지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둠. → 대안학교 양업고등학교 진학 → 청소년 영화제에 작품 출품 → 1년 간 대학생활동 →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작비를 모아 영화제작

- **장래 포부** 자신의 영화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 상을 받아서 인정받는 것

- **그의 한마디** 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 궁금증의 해답을 찾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소통,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그래서 지독한 성장통을 겪는 나이 열여덟. 그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제 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PiFan)에서 주목할 만한 독립영화에 수여하는 LG하이엔텍상을 받은 한윤선 감독의 영화 <18 : 우리들의 성장노와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윤선씨의 영화에 대한 애정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오직 영화를 배우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는 어린나이에 남들보다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벌었고, 또 그 돈으로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다.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매체이기 때문에 영화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잘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진솔한 사람이었다.

영화를 배우게 해주겠다는 말에 양업고에 들어갔어요

윤선씨가 영화감독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도 질렸을 무렵 그는 집에서 혼자 비디오로 영화를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영화를 보다가 문득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던 그는 영화를 배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개인 편집실을 다녔어요. 편집실을 다니다가 아카데미 같이 큰 데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부모님께 아카데미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학교를 다시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암기식 교육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화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보니,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성지중고등학교에 들어갔던 그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교육 방식을 견디며 억지로 다니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그만둔 그는 이듬해 대안학교 양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사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던 것이죠. 학교에서 영화를 배우게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으니까 조용해서 시나리오 쓰기도 좋을 것 같았고, 2주에 한 번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때라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니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선씨의 바람과는 달리 양업고 입학 이후에도 영화를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서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의 외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다보니 선생님들 중에는 그의 잦은 외출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을 염려하는 분도 계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선생님께 매일 얘기했어요. 영화를 찍고 싶는데 왜 못 찍게 하시냐고요. 결국 청주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영화 배우러 다녔어요. 학교가 외부랑 떨어져서 간혀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골에 있었는데 서울을 한 번 다녀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영화에 대해 공부해나가던 그는 고등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어 출품하는 청소년영화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30만원의 제작비, 카메라, 조명 2개를 지원받아 그는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어머니, 친척동생, 옆집 할머니를 배우로 캐스팅하여 영화를 만들었던 그는 연기와 연출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나름대로 평을 자세하게 적어줘요. 연기와 연출이 부족하다는 말에 제대로 배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영화를 찍으며 연기하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돈이 모이면 영화를 만들고, 또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또 다시 영화 만들기를 반복했죠

윤선씨의 대학생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이 좋아한다면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조사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대학에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깨우치는 것이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는 더 이상 대학생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1년 만에 대학을 그만두었다.

“같은 학과 친구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며 친구들을 통해 배웠던 것도 비슷해요. 말로만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죠. 저한테는 영화를 만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그는 영화계에서 일을 할 지, 혼자 시나리오를 쓰며 영화를 만들 준비를 할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

했다. 그리고 영화 제작비를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우선은 돈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모이면 영화를 만들었죠. 3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중에는 2800만원까지 단편영화임에도 제작비를 늘려갔어요.”

그는 영화 제작비를 모으기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때로는 제작비가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어 영화를 만들고 그 돈을 갚기 위해 하루에 1~2시간만 잠을 자며 일을 한 시절도 있었다. 그의 나이 27살에서 28살이 되었던 무렵이었다. 그는 감독으로서 영화를 한 편씩 만들 때마다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되었다. 함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깊어져갔다. 영화를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영화를 만들고, 다시 돈을 벌어 영화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그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만족감도 컸다.

“늘 영화를 만들고 싶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혼자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해야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고민이 풀려요. 예를 들어서 영화감독을 꿈꾼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죠.”

영화라는 매체가 매력적인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청소년들의 이야기이지만,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영화를 만드는 윤선씨는 앞으로도 수위를 조절하여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소위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는 그들의 폭력을 미화할 목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 많고 불안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정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저는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대안학교 다닐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관심도 받고 싶었고요. 제가 만든 영화의 내용도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응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살아오면서 사람에게서, 영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는 영화라는 매체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화는 사람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 흥미롭다고 그는 말했다.

“대안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많이 배운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찰력과 진심에 대해 많이 배웠죠. 그런 경험이 지금 제가 영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두렵

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받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 깨닫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자, 꿈이죠. 영화감독이라는 일이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상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 곁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꿈이자 일인 영화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수없이 봐온 많은 영화들이 제게는 다 공부가 되었어요

윤선씨는 지식도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쓰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결국은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람들과 나누느냐의 문제인데, 그는 그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없어졌지만,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줄곧 영화만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살아오면서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지식의 차이를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도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공부를 한 것이 있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화 정말 많이 봤어요. 하루에 8편을 본 적도 있으니까요. 1.5리터짜리 콜라 한 병을 옆에 딱 놔두고, 팝콘도 이만큼 놔두고서요.”

비디오의 마지막 세대였던 그는 대여점을 찾아가고, 동대문을 찾아

가서 보고 싶은 영화의 비디오표를 찾아 봐야 직성에 풀릴 정도로 다양한 영화에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었다. 다양하고, 많은 영화를 손쉽게 구하여 볼 수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영화에서 꿈을 찾고, 영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는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기 꿈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보고 해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좋은 예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죠.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쏟아지면 어렵겠지만 도움을 주실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 궁금증의 해답을 찾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07

끝없이 생각하며 게임을 만드는 푸른꿈고등학교 졸업생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은 자존감을 만든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 마케터

김희영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여자

- **하는 일은?** 개발 게임의 홍보 전략 기획과 노출에 대한 마케팅

- **꿈을 이룬 과정** 전북 무주의 '푸른꿈고등학교'(대안학교)→광고홍보학 전공(대학)→게임회사 네오위즈 인턴→광고대행사 근무→네오위즈 정직원→게임회사 위메이드 마케팅 부서 근무

- **장래 포부** 치열한 인생을 보내고 훗날 안정적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일

- **그의 한마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은 자존감을 만든다

김희영

온라인 모바일 게임 마케터



김희영씨는 전북 무주에 위치한 생태지향 대안 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다. 방황했던 중학생 시절을 거쳐 안착한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받았다. 유연한 생각을 가진 그녀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고, 게임회사 네오위즈게임즈를 거쳐 현재 윈드러너, 이카루스 등의 게임을 개발한 위메이드 온라인/모바일게임 사업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이란 특수 분야에서 다년간의 마케팅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그녀는 게임 산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4년차가 되었다.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그녀의 이야기는 게임처럼 흥미로웠다.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받았을 땐 기분이 나빴어요

요즘 생긴 단어 중, 허세가 있고 강한 척하는 사람을 보고 중2병이라 부른다. 중학생이었던 희영씨도 한때 사고도 꽤 치고 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2병에 걸린 청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님이 진지하게 대안학교 진학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기분이 나빴다. 대안학교는 문제아가 가는 학교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대안학교를 돌아보고 싶으면 다니지 말라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희영씨는 몇 군데의 대안학교를 돌아다녔다. 그녀의 맘에 든 학교는 무주에 위치한 생태지향 대안학교인 ‘푸른꿈고등학교’였다. 인문계열이었기에 부모님도 만족하셨고 학생의 자유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에 그녀 역시 만족할 수 있었다.

전교생이 기숙 생활을 하는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간섭도 없었고, 보통의 인문계 학교처럼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선생님들은 학생이 원할 때 가르침을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강조했다.

“규칙을 학생회끼리 정해서 다수결로 정했어요. 선생님도 한 표, 학생도 한 표. 우리의 태도나 생활 자체에 대해선 스스로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란 걸 알려줬죠.”

학교는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죠

희영씨가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물어본 질문이었다.

“너는 뭐를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니? 언제나 제 생각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수업도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 됐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너는 꿈이 뭐야? 앞으로 뭐 할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생각하길 귀찮아하는 요즘 사회의 특성에 반하는 ‘푸른꿈 고등학교’의 사유하는 교육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쓰레기들을 산 아래에 묻어서 버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생태지향학교인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교에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말하셨죠. 제가 느낀 감정은 당연히 넘어갈 것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대장으로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선생님이 교사대상의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합법이란 생각만 했지 학교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을 들었죠.”

그 이후로 그녀는 스스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란 자각을 하게 됐다. 동시에 의견을 내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단 사실도 깨달았다. 고 2때 학생회장이 되고나서 그녀는 더 큰 욕심을 갖게 됐다. 대학 진학에 별 뜻이 없었던 그녀가 학생회 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수업

을 받고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결정한 그녀는 일반고에 있었다면 자신이 어떻게까지 깊이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고3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거나 취업이 안정적인 과를 지망하는 흐름 속에서 희영씨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광고 홍보학과에 진학했다.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얻은 결론이었다.

게임회사와 광고회사의 면접을 봤어요

대학교 4학년 시절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희영씨는 인턴 경험이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와 게임회사 네오위즈게임즈의 면접을 보았다. 광고 대행사 면접에서 받은 질문은 주량이 얼마인지 야근을 잘 할 수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의 신변에 관련된 질문이었던 반면, 네오위즈의 면접은 달랐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게임을 좋아하는지, 요즘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었다. 그녀가 지원했던 광고 대행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꽤 큰 기업이었고 잘만 하면 정규직이 되겠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결국 집에서 회사까지의 이동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게임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면접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녀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컸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팀장은 그녀에게 당장 정규직 전환은

어렵지만 계약직으로 6개월 더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불안한 미래가 걱정됐던 그녀는 팀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광고대행사에 취직한다. 하지만 그곳에선 그녀가 납득할 수 없는 철야와 모순된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답답해하던 그녀에게 네오위즈게임즈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나간 동안 상사들을 설득한 팀장의 정규직 제안이었다. 돈으로 보나 꿈으로 보나 네오위즈를 가야겠단 결론을 낸 그녀는 결국 다시 게임회사로 돌아왔다.

생각의 유연함이 게임 시장과 잘 맞았어요

상사가 별 생각 없이 톡 던진 ‘피파온라인2’ 게임의 피시방 프로모션 의견 공모에서 그녀는 특유의 유연한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시절 피시방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의견은 미리 기획해둔 프로모션 진행안을 재정비하게끔 하였고 회사 내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게임, 모바일 게임 등 넓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게임 제작 팀 역시 많기 때문에, 회사 이직이 활발하고 평균 연령이 어린 것이 게임 시장의 특성이다. 회사에 몸담은 지 2년이 됐을 때, 그녀는 게임회사 위메이드로 이직을 했다. 피시방 프로모션 의견을 받아들여줬던 팀장의 제의가 들어왔던 것이다. 경력을 좀 더 유지하며 년차를 쌓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처음엔 제안을 거절하지만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모

바일 게임 시장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러닝 어드벤처 모바일 게임 '윈드러너'나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 이카루스 등이 개발되고 사업화 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녀는 게임에 있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케팅에 있어서 1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일단 게임 런칭 쪽을 신경 써야 해서 현재 게임의 앞으로의 개발, 업데이트에 대한 1차 회의를 하죠. 업데이트 됐을 때 관심을 끌려면 광고와 이벤트가 필요하니 2차적으로 마케팅부에서 다시 회의를 해요. 이 업데이트에 어떤 컨셉을 만들어 어떤 광고를 하고 얼마의 비용을 쓸까. 얘기가 끝나면 예산을 받기 위한 기획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 후 승인이 떨어지면 외부업체와의 미팅이 진행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 및 제작 홍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녀는 데이터와 전략 같은 기획의 중요성과 더불어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도 민감했다. 유행하는 것과 사회적 이슈 혹은 문제점들이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하고 관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던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게임을 잘 알아야 되고 야근도 너무 많았던 2년차의 이야기다. 그러나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협업에 만족하게 되었다.

자신만의 생각이 필요해요

대안학교에 온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늘게 된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회의감이 들 때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보다 더 강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녀 주위에도 대안학교를 선택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학우들이 있었다.

“대안학교에서 애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대학을 가야 하나?’ 라는 거예요. 그때의 삶 자체가 즐겁고 치열하게 살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다시 사회의 경쟁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나는 대안 학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뒤쳐졌어 라는 생각도 하는 거구요.”

그녀는 최근 게임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푸른꿈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을 챙기고 고민을 많이 하라는 후배들이 들으면 실망할 수 있는 다소 평범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말했다.

“선택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연구원이 하고 싶을지, 마케팅 또는 다른 게 하고 싶을 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 거죠.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을 쌓아 놓으면 나중에 맨 위에서 둘러볼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요즘 젊은이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의 의견에 편승

해 말을 엮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요새 인터넷 댓글을 보면 베스트 댓글이라 해서 제일 위에 뜨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그럴 듯하면 자기 생각인냥 추천을 누르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의’의 행위지 자신의 100%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자기 생각을 줄줄 써보면 어감이나 결론이 다를 수도 있죠. 이렇듯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을 써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더라도 속으로는 생각을 해보는 게 자기를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사색은 자존감을 만들죠

대안학교에서의 공부는 책상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리산 종주, 무인도 체험 역시 김희영씨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준 것이다. 계속된 질문은 어느 순간 그녀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바라본 자신의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은 반성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자존감을 만들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끝없이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러면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가치관을 이루고 사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젊은 지금은 치열하게 살고 있구요. 나중에 스트레스 없이 제 자신
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8

평촌목장을 운영하며 유기농 요구르트를 만드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자연과 사람에게 모두 유익하게



낙농업자
신준수

- **누구의 이야기?**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와 농업대학에서 배운 철학과 기술로 낙농업을 하는 남자

- **하는 일은?** 평촌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로 유기농 요구르트를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어릴 때부터 젖소들 사이에서 놀며 자라다 →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입학 → 농업대학 입학(식량작물학과) → 졸업 후 부모님 목장에서 낙농업을 도와 가족기업을 만들

- **장래 포부** 유기축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
생명산업인 벼농사를 짓는 일

- **그의 한마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충남 홍성군 홍성군 금평리 평촌에 있는 「평촌 목장」은 매일 매일이 바쁘다. 젖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농가와와는 다르게, 직접 키운 젖소에서 짜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판매까지 하기 때문이다. 『똥벼락』의 작가로 유명한 조혜란 씨가 평촌목장의 일과를 『노아네 목장은 맨날 바빠』란 제목으로 책을 낼 만큼 바쁘다. 부모님이 하시던 업을 물려받아 보다 나은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생산을 하고자 매일 땀 흘리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신준수 씨를 만났다.

농업은 내가 갈 수도 있는 길

신준수 씨는 어린 시절 젓소들 사이에서 젓소와 놀면서 자랐고 매일 보는 것이라고는 축사, 목장뿐이었다.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소를 키우고 우유를 생산하며 그의 형제를 키우셨기 때문이다. 그도 한 때 여느 아이들처럼 과학자, 기술자, 의사 등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농업이 내가 갈 수도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 어느 신문에서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일반적인 인문계 학교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기사를 보고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 하나를 온전히 길러내는 ‘전인교육’을 한다는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었던 아버지는 제게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추천하지 않으셨죠.”

당시만 해도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공부를 못하거나 문제아, 말썽쟁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많이 변해서, 신준수 씨가 들어간 해에는 정원 미달이던 학교가 정원의 100%를 채웠고 그 후에는 정원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원하는 학교가 되었다.

“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농업학교이니만큼 농업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실습장학생으로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학교 안에

서는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농업 관련 동아리나 농업 관련 특별활동에만 치중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돌아켜보면 풍물, 미술, 사진, 연극 등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농업학교인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조차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워요. ‘대학은 웬만하면 가야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이었고 선생님들도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보다는 우선은 대학을 가는 쪽을 권유했어요. 가방에 무거운 EBS 수능교재를 넣고 다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밖에 나가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일을 했죠. 차라리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 관련된 전문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준수 씨는 농업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는 다른 가치관에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노동으로서의 가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가치를 두는 농업을 배우는 반면 농업 대학에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효율적인 농업을 가르치고 있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산을 해

야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지'가 중요했다면, 농업대학에서는 농업을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전문 농업기술과 농업 경영기술 위주로 공부하여 학교 졸업 후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소를 길러서 돈을 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또 ‘나와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시작하게 되었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그런 정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농업대학에서 실제로 전공한 것은 축산학이 아니라 식량작물학으로 벼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정농(바른 농사)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생명을 기르는 산업이자 생산한 농산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업이라고 배웠다. 그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량작물과를 선택했던 것이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목장을 운영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돈을 벌어도 시설에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고 경영상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삼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하시다 빚도 생긴 건데 어떻게 축산업을 그만 두자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소들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식량작물이 으뜸이고 벼농사가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부모님이 이루어 오신 것을 그만두

자고 할 수는 없었어요. 벼농사는 농사를 지을 땅도 있어야 하고 기계나 장비도 갖추어야 하니 현재로서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천천히 자신이 생각한 대로 농업에 이루어나갈 생각이예요.”

생산쿼터제 극복을 위해 목장형 유가공 선택

우유는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여서 우유 생산량이 많아도 팔 곳이 없다. 과일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제 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공은 대기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농가는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2002년, 2003년부터는 생산쿼터제를 실시해 자기에 할당된 쿼터만큼만 생산·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야 목장 경영이 가능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유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 우유가 남는 상황에 생산쿼터제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목장형 유가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돌과구를 찾고 있던 농가 몇몇이 모여 세미나와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외국으로 견학을 가기도 했다.

이런 노력과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이 평촌목장의 유기농 요구르트다. 평촌목장의 주거래처는 생협(icoop)이고 소규모 친환경 매장들이나 친환경 급식업체며 개인과 직거래를 하기도 한다.

현재 평촌목장은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던 형도 내려와 가족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산쿼터제로 인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공공장을 만들었을 때 부모님과 신준수 씨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일반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형에게 ‘어차피 그쪽도 어렵다면 한곳에 모여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결국 도시의 회사원 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형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품 원가 계산 등 회계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 것

“농업분야는 아직까지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유능한 인재가 나타난다면 땅이나 재산뿐 만 아니라 농장의 경영 노하우까지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출신들이 협업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농사지을 기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신준수 씨는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아이가 농업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사람에게는 더 이롭고 환경은 덜 해치면서 완성도가 높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라고 할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환경이 더 파괴되고 아프리카 오지는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축산업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완성도가 높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볼 때는 축산업을 줄이거나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현재 유기농인증을 받은 안전한 사료만을 소에게 먹여 우유를 생산하는 유기축산법으로 보다 안전한 우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를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축산업을 하는 것이 그의 현재 목표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축산업을 그만두고 식량작물을 농사짓는 일이다.

“저는 항상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살아오면서 제대로 읽은 책이 몇 권 안 될 만큼 책을 못 읽는 사람이에요. 그 몇 권 중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책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에요. ‘내 주머니’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 한 권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에요. 사람은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진다는 것, 사랑이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죠.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했고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멋진 진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독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신준수 씨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평촌목장의 내일은 밝아질 것이다.

09

어린 시절부터 농부를 꿈꾸며 농부의 길을 걸어온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곧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다.



농부
주하늬

- **누구의 이야기?** 농부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 그 누구보다 농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농부의 길을 걷고 있는 남자

- **하는 일은?** 벼농사, 채소농사, 소를 키우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진학→경북대 농업과 진학하여 풀물때 동아리 활동→27살의 나이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농부로 살아가고 있음

- **장래 포부** 농사를 짓는 스스로가 즐겁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살아갈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 **그의 한마디**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꿈을 꺾어야 한다



농부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에서 놀고, 흙에서 자란 주하늬씨는 어릴 때부터 오직 단 하나 농부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왔다. 농사에 대한 애정으로 농촌운동에도 앞장 서셨던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꿈을 꾸지 않은 뼈 속까지 농부인 사람이었다.

당연한 수순처럼 부모님이 졸업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들어가 농사를 배우기 시작해서,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농부가 된 그는 현재 벼농사도 짓고, 채소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자, 삶이 된 주하늬씨, 젊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한다는 그의 말이 땅의 기운처럼 활기가 넘쳤다.

어렸을 때부터 농부 이외에 다른 꿈은 없었어요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적으라고 하면 늘 농부라고 적었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역시 농대를 나와 바로 농사를 지었어요. 꾸준히 농부라는 꿈을 키워나가며 일종의 코스를 밟은 셈이에요.”

하늬씨가 농부를 꿈꾸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그의 부모님은 ‘친환경농업’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남들보다 일찍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시작하셨다. 농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그는 자연스럽게 농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농부의 꿈을 키우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의 부모님 역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들어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때는 공부 못 하고, 말썽피우는 친구들이 ‘농사나 짓고 살래’라고 말하는 시절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외지로 나가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온 친구들이었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여서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사이신 경우가 많았어요.”

농사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부모님 덕분에 자주 갔었고,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었던 학교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농사에 대한 주입식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공부 부담도 없어서 더 좋았어요. 공동체 생활, 노동을 같이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생활도 좋았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경쟁률은 치열했다. 전국에서 농사를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에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농사에 관한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열심이던 그는 농사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는 수시로 지원한 농대에 당당히 합격했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 농업과를 들어갔는데 농약과를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했었던 풍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풍물패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했는데, 학과 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풍물에 집중해서 보냈거든요. 경북대가 워낙 외지에 있고 말투도 억세고 하니까 처음에 되게 낯설었는데 풍물이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나 시골정서하고 공유도 많이 되었죠.”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던 그가 수업보다 풍물패 활동에 더 충실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실용적이지 못한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에, 점수와 시험이 중심이 되는 대학 교육에 그가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다.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필요한 교육 같았어요. 지금 대학을 가면 제게 필요한 부분들을 얻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외우고 시험보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은 대학에서 무언가 배우기에는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던 나이였죠.”

농부의 삶도 좋지만 농촌에서의 삶도 좋죠

“씨를 뿌리고, 심으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 해 실패하면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한 해에 한 번밖에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 하죠. 해마다 농사를 지으며 얻는 경험으로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공부를 마치고 27살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하늬씨는 고된 일이 힘들어도 농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고생하는 만큼 수확했을 때의 보람도 큰 일이 바로 농사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에 산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농사는 어떻게 보면 ‘삶’ 그 자체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면 끝이 아니라 밤에도 나가서 농작물을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하죠. 출퇴근 없이 계속되는 일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농사가 적성

에 맞아요. 제가 체력도 좋고 튼튼한 편이라 몸을 쓰는 일이 잘 맞기도 하고요. 세 살 된 제 아이가 흙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때면 새삼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쁘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다는 것 그 자체였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유통에 신경을 쓰다보면 본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농사를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농사를 짓는 스스로가 즐겁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살아갈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겨울이나 농한기에는 자기계발을 위해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농사라는 것이 건강한 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내도 그렇고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직 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농사라는 것이 환경, 정책, 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환경, 정책, 시장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도 아버지처럼 농촌운동에 뛰어들어야겠죠. 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식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니까요.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이 보기보다 녹록치가 않아요.”

쌀시장 개방으로 농촌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농사를 짓는 삶에 대한 하늬씨의 고민이 깊어졌다. 옛날과는 달리 빠르게 변해가는 농촌 생활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그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는 농사짓는 농부뿐만 아니라 귀농을 꿈꾸는 사람, 농산물을 먹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똑똑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으면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순서가 바뀐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야죠.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그는 농사짓는 농부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생활도 해보고 여러 경험이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 역시 뒷받침이 되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어린 친구들의 귀농은 정말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면지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전체적인 체계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분야에 인력이 육성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오히려 일일농장체험을 하고 선불리 농사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농사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랑 농사를 지면서 농촌에 살겠다고 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농사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사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린 학생들에게 ‘너의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는데,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이 먼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죠. 꿈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늬씨는 꿈을 꿀 시간도 경험도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무원, 의사, 변호사를 꿈꾸기보다는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말했다.

“저는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일이 농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떡 거리가 기본이잖아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했죠.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서 꿈을 꾸면 될 것 같아요.”

10

영화계에서 13년, 전문 조감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세상에서 혼자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영화 조감독

백마강

- **누구의 이야기?** 영화계에서 조감독으로 자리 잡은 대안학교 졸업생

- **하는 일은?** 영화 연출팀 대장 조감독

- **꿈을 이룬 과정** 대안학교 졸업→철학과 입학→영화계 입문→소품 담당→캐스팅 담당
→고증 담당→시나리오 개발, 조감독 전문 분야 개척 중

- **장래 포부** 감독이 되기 위한 조감독이 아니라 전문 조감독 분야를 개척

- **그의 한마디** 아무도 안하는 일을 한다고 두려워 말아라



피아노 전공으로 음대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한 여학생이 대안학교로 전학을 한 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중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배웠다. 13년 전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100통 넘게 쓰던 끝에 간신히 일자리를 얻은 백마강씨는 밑바닥 일부러 시작해 지금은 조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10편의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5편밖에 개봉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용기 있게 전문 조감독 분야를 개척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각이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린 문

백마강 씨는 사회사업가인 아버지와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인 어머니 밑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는 자랐다. 가평에서 서울로 피아노 레슨을 다니게 하실 정도로, 부모님들은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대학을 가기 위해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낭만주의 음악 대신 입시곡인 고전주의 음악만을 연주해야 하는 입시 시스템에도 점점 지쳐갔는데, 결정적으로 3학년 학생회 선배들이 1, 2학년을 강당에 모아놓고 복장검사를 한다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많은 학생이 강당에 모여 있었고, 선생님들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 상황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 왔고 그 외의 길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레슨 열심히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생활이 싫어진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어차피 음악을 포기할 거면 인문계 학교를 계속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마침 동생이 대안학교에 가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께 저도 그 학교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상의드렸죠. 그 때 이미 3학년이

되어서 전학이 쉽지 않았지만, 어렵사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안학교를 들어가 보니 자신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그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이자 해방감보다 지금까지 사람들 말에 따라 맹목적으로 걸어온 지난 시간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왔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다’,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피아노 치고, 집으로 돌아 가면 파김치가 돼서 푼아떨어졌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잠 잘 시간도 부족한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들어가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죠.”

그녀의 주위에는 대학 입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실제로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귀에 종종 들려왔다. 그녀에게도 대학을 가지 않고도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간혀 있던 생각이 어디든지 마음껏 뻗어 나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자, 그녀는 마침내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피아노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주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마치 위험한 길에 접어든 어린 아이를 나무라듯 혀를 차며 말렸다. 그러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선생님들은 영화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며 같이 고민해 주었다. 그 이후 그녀는 학교에서 ‘영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로 통했다.

영화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백마강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에 연극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스틸 카메라 하나 갖기도 어려운 시절이라 영상반을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고3이었지만 그해에 대학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그녀는 학교에 연극반을 만들어 학교축제인 풀무제 때 공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학교의 비디오 자료를 찾아보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탄탄히 키워나갔다.

“본격적으로 영화와 가까워지려면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무작정 서울로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기에 대학 진학을 결심했고 연극영화과에 지원했죠. 연극영화과는 떨어지고 2지망이었던 철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2학년 때까지는 가평에서 서울

로 통학했다. 학교에 영화 제작 중앙 동아리가 있었지만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할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영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학교 내에서 영화감상 동아리를 만들었다.

“원래 계획은 1학년만 다니고 다시 시험을 봐서 연극영화과에 가려고 했는데, 철학과 전공 공부와 영화감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생각을 접고 대학생생활을 즐겁게 마치게 되었어요.”

이력서 100통 넣기

백마강씨는 졸업 후 정식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다.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영화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영화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단편영화 만드는 곳을 찾아서 무작정 쫓아다녔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면 어디든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겠으니 쫓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렇게 단편영화 찍는 곳에서 일을 배우면서 일반 상업영화 연출부 모집 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렸다.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채용하던 시절이라 구인 공고가 잘 나지 않았지만 어쩌다 구인 공고가 올라오면 그녀는 빠짐없이 이력서를 썼다.

“이력서를 100통 넘게 썼지만 연락을 받은 곳은 10곳도 안 되었어요. 그중에서 면접까지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래도 계속 이력서를 넣었어요. 거의 1년 반 만에 상업영화 찍는 곳에서 면접을 봤고 운 좋게 연출부 막내로 입사했는데, 4개월도 못 가 그 영화가 망하는 바람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다행히 그 당시의 조감독이 다음 영화를 찍을 때 그녀를 다시 불러주었다. 연출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조감독의 권한인데 함께 고생했던 스태프들을 눈여겨보았다가 다음 영화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첫 작품이 개봉을 했다. 코미디 액션영화 <똥어야 산다>에서 그녀는 연출부 막내로 소품을 담당했다.

“상업영화도 한 편 찍었겠다, 이제 일자리가 줄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1년 반을 쉬어야 했어요. 그 당시의 조감독님이 다음 작품 때 다시 불러주셨지만 그 영화가 또 망했어요. 개봉도 못했죠. 그렇게 그 조감독님과 세 번 같이 일했는데 개봉한 것은 한 작품밖에 안 돼요.”

연출부는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결정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한다. 시나리오만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 배우 알아보고, 투자사 알아보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다 없던 일이 돼버린다. 설상가상 항상 불러주던 조감독마저도 감독 준비를 하면서 더 이상 그녀를 끌어줄 사람이 없게 되자 그녀는 다시 이력서를 넣으며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이력서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집에서만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돈도 안 벌고 출근도 안 하고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재, 죽은 거 아니냐?’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때 그녀의 나이 29세였다. 그녀는 하는 일 없이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에게 올해 안에 영화 일을 못 구하면 아예 영화관을 떠나겠노라고 선언을 했다. 그렇게 그녀가 모질게 마음을 먹자, 다시 한 번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해 7월 말에 조감독 협회에서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특강을 개최해서 거기에 지원하여 두 달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조감독한테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합의가 되야만 결정하는 문화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라는 영화에서 백마강 씨가 맡은 일은 캐스팅이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끝에 얻은 기회였기에 감사한 마음이 컸고, 열심히 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열심히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그 영화가 끝나자 함께했던 조감독이 그녀에게 다음 영화도 같이 하자는 제의를 했다. 다음 작품은 <신부수업>이었는데 그녀는 여기서도 막내로 들어가 고증을 담당했다.

“매일 책을 펴놓고 공부했어요. 가톨릭 방송을 매일 들었고, 주말이면 미사 보러 성당에 다니면서 의상, 소품, 가톨릭 의식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렇게 영화 세 편을 하고 나니 어디든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감독 셋이서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만드는 움니버스 영화를 기획하면서, 이제까지 스태프 막내로만 일하던 그녀에게 조감독

제안이 들어왔다. 비록 30분짜리 단편영화였지만 조감독으로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기쁨에 들뜨는 것도 잠시, 그 영화 촬영 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계속 늦어졌다. 하지만 ‘세옹지마’라고 하더니, 그녀는 조금씩 지쳐 가고 있을 때 <가족의 탄생>이라는 장편영화에서 다시 조감독을 맡게 되었다.

“어떤 감독과 일해도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영화 일하는 현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안학교는 항상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가 되어야 결정하는 문화였으니까요. 회의가 많아서 힘드니 회의 방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회의하고, 회의를 줄이지는 회의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합의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모으고, 한 발 양보하고 대안학교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뒤에도 <하모니>와 <혈투>에서 조감독을 맡았다. 현재 그녀는 다음 영화를 기다리는 동안 공동작업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기로에 서서 고민 중이다. 대개 조감독은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대로라면 그녀도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녀는 ‘전문 조감독’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전문 조감독’은 말 그대로 조감독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이에요. 외국의 경우 전문 조감독이 있어서 그에 따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감독이 보다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죠.”

그녀는 스태프들과 어울려 작업하면서 감독의 스케줄 관리, 사람들 사이의 갈등 해결 등 전체를 조율하는 ‘조감독’ 자리가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경험을 쌓다 보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문화하여 독립된 전문 직업군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전문 조감독’은 감독이 되는 것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지, 전문 조감독이라는 분야를 개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두고 봤을 때는 지금 반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시작이고, 전문 조감독을 하는 것도 없는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니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도전이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만큼 돈을 벌기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녀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스태프들과 일하고 싶고 도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나 혼자 한다 해도 두렵지 않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나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불안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대안학교에서 얻었어요. 나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온 세상에 나 혼자 남아서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요즘 후배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커져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대단해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무서운 학교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현재 대안학교(풀무원고등기술학교) 졸업생들 중 일부는 10년 정도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생협(생활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술집도 만들고,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파는 곳도 만들고, 도서관과 유치원도 만드는 ‘마을문화만들기’가 그들의 꿈이다. 마을 공동체를 보면서 자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꿈이자 미래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들었던 사회와 직접 겪은 사회는 달랐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학벌이나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노력

하는 그런 사람을 더 필요로 해요. 남을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는 학교 현실이 안타까워요. 남을 이기고 위에 서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과 합의를 하기도 힘들고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럿이 마음을 맞춰야 하는 공동 작업의 경우 한 사람이 너무 두드러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집중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백마강 조감독이 영화관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접합시키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잘해내기 때문일 것이다.

11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건축 설계를 꿈꾸는 한빛고등학교 졸업생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야 후회가 없다.



건축설계사

김정민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남자
- **하는 일은?** 현상 설계 공모전 중심으로 건물을 구상해 공간화 시키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전남 담양의 한빛고등학교(대안학교)→미국 유학(건축과)→건축사무소
- **장래 포부** 자신만의 건축 사무소를 설립해 하고 싶은 설계를 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야 후회가 없다



김정민씨는 1997년 전국 최초 인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한빛고등학교의 3기 졸업생이다. 어릴 적부터 건축학도의 꿈을 품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의 건축과에 진학해 현재 현상 공모전을 위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가 하는 건축 설계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용도, 지형, 디자인 등의 전체적인 구상을 한 후 공간화 시키는 작업으로 그가 한국에서 건축 설계 일을 시작한 지는 2년에 접어들었다. 자신의 소신을 믿고 달려온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의 설계에 대한 열정처럼 탄탄했다.

일반학교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정민씨는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에게 어떤 책을 추천받았다.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라는 대안학교에 관한 그 책을 결혼 전 중학교 교사였던 어머니가 그에게도 권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 책을 읽고선 이런 학교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초등학생이었던 그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할 때가 많았고 그런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한 싫었어요. 일례로 학교가 말하는 두발단속 같은 규율의 정당성에 동의할 수 없었죠. 학교는 학생의 본분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 본분에 집중해야 하므로 머리를 자르라고 하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논리라면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인데,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머리를 잘라야 하는 거죠. 두발단속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생을 제압하여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해요. 강압적으로 억눌려지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는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책으로 접했던 거창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세지며 다른 대안학교를 찾아보다 발견한 곳이 인문계열의 대안학교 ‘한빛고등학교’였다.

“처음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에서 우선 크게 호감을 갖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죠. 일반 학교

의 강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가 평등했죠.”

대안학교 수업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죠

“일반적인 교과수업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문학 수업 때 시나 소설이 나오면 연극적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죠. 황순원의 ‘소나기’란 작품을 배우는데 한 친구는 그 장면 안에 있는 소가 되겠다며 소 연기를 하기도 하고, 세계사 수업 첫 시간엔 교과서를 펼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 인류 역사의 10대 사건을 써보라고 했어요. 직립보행부터 시작해 10개를 추려 수업 시간에 조별로 발표를 하고 그걸 토대로 수업을 했죠. 사건들의 연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 도출 되도록 하는 수업이었죠.”

어떤 수업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개인차가 크지만 적어도 한빛고등학교에서의 배움은 그에게 있어선 획일화된 수업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넓게 열어준 것이다.

어릴 적부터 건축설계사가 꿈이었어요

진로를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는 어린 시

절부터 건축 설계를 하는 것이 꿈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선수에서 건축설계사로 진로를 마음먹은 이후 그의 꿈은 변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대 입시를 위해 미술 학원에 등록하기에 이른다. 건축설계사가 건축과 진학이 아닌 미대 진학을 생각했던 것엔 한국 대학의 건축과의 분위기가 큰 이유였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과를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과는 공대에 속해있었죠. 그림을 그리고 건축 설계는 하고 싶지만 공대에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대를 가도 건축을 할 수 있단 얘기를 듣고 입시 미술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가 경험한 입시 미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것을 암기하는 공부였다.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 주제를 주면 그것에 맞춰 상상력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거였는데 학원에선 공식과 답이 정해져있는 그림을 가르쳤어요. 미래라는 주제가 나오면 키보드나 모니터를 그려라 등의. 싫었지만 대학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렇게 싫은 것을 참으며 그림을 그리던 그는 우연히 나간 미술대회에서 자신이 해석한대로 그림을 그렸다. 스스로도 만족했고 주위의 참가자들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분위기의 그림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그리고 학원에서 대회에는 상을 탈 수 있는 공식이 있고 그 학교 교수나 심사위원들이 취향이 정해져있기에 것처럼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선 절대 상을 탈 수 없단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디자인과를

목표로 공부하던 그는 결국 입시 미술을 그만뒀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랐던 것이다.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의 총체예요. 만약 컵을 디자인 한다고 하면 ‘액체를 잠시 보관하고 마실 수 있는 도구’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컵이라는 것을 예쁘게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장식인거죠.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미대 진학을 포기하던 그 때, 그는 우연히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디자이너가 쓴 ‘12억짜리 냅킨 한 장’이란 책을 읽게 됐다. ‘디자인은 발명을 하는 것이기에 계획적이며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글귀를 읽고 눈물을 흘렸던 그는 결국 미국에서 공부를 한 김영세 디자이너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결심을 했다. 부모님에게 미국을 가겠다는 편지를 썼고 다행히 그의 부모님은 그의 결심을 받아들여 주었다.

미국의 공부는 NO가 아닌 Minor를 인정해줬죠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더 준비해 그는 뉴욕에 있는 미대 건축과에 입학했다. 공대에 건축학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의 미대에는 건축과가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적이고 공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가 하면,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등 다양한 시각들을 접하며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제가 배운 미국 건축교육의 경우엔 현실적인 설계 부분에 있어 좀 더 관대했어요. 가령 문 설계를 했을 때 문 폭이 좁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문 폭이 좁으니 안된다가 아닌 minor하단 반응이었죠. 대신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가는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던 거죠. 단점이라면 졸업하고 처음 한국에서 일을 할 때 어려웠어요. 관련 법률도, 한국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나만의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건축회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개인 아틀리에와 대형 건축사무소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아틀리에의 경우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많은 반면 대형 건축 사무소는 국가, 기업들과의 작업이 주를 이뤄 경기에 많이 좌우되는 편이다. 건축 자체가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경기의 영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년 반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 군대를 다녀온 뒤,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했다. 현재 그가 재직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설계·감리 등을 다루는 종합건축사무소로 그는 현상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건축 공부를 한 그가 한국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설계하는 관

점이 다르기 때문에 빈번히 팀원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다. 얼마 전 회사에서 참가한 도서관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 당시에도 그는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저는 건축이 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나이, 출신학교, 직업 등 나를 둘러싼 배경에 의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지와 같은 내 스스로의 모습이 있죠. 후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사를 능동적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통해 어떤 생각과 지향점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으로 고민의 결과를 건물이 들어설 대지를 둘러싼 지형, 도로 등의 환경에 대입시켜보죠. 그럴 경우 관습에 벗어난 이 건물만이 갖고 있는 색이 만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의 작업은 그런 개성을 받아들여질 않아요. 대지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가장 일반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이쪽 면에 가장 큰 도로가 나 있으니 이 도로변에 주출입구를 만드는 것을 정답이라고 여겨요. 만약 이 건물이 아주 고요한 분위기를 원하는 건물이라면 좁은 길을 걸어 들어와 작은 문으로 출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사람으로 치면 내 스스로의 모습 없이 나이, 출신학교, 직업 등의 배경만 남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특징 없는 건물에 유니크함을 만들기 위해 길을 치장하죠. 이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디자인이 아닌 장식이라고 생각해요.”

건축 설계를 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할 생각보다 정답에 맞춰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그것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잘

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을 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지를 판단하는 자신의 기준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업무량에 비해 박봉인 건축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설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회사에서의 경험도 훗날 자신의 독립을 위한 경험이라고 했다. 독립을 해 자신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여는 게 그의 목표이기에 여러 과정을 배우고 연차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독립을 위해 아뜰리에 이직을 생각 중이었다.

“건축가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건축가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줄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디자인된 건물은 장식만 된 건물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야 후회가 없다

대안학교를 다닌 그 역시 친척들이나 주변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을 느낀 적이 있다. 당시 그의 주변에는 대안학교에 가는 것은 성공의

밧줄을 놓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는 ‘한빛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후회하지 않았다.

“학교가 제 진로를 정해준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가는 태도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생각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축과 여러 일들에 대해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선입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죠.”

교육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는 ‘대안’이라는 단어에 우려를 표했다. 그 자신에게 있어 ‘대안학교’의 교육은 대안이 아니라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사람들을 봐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관심 분야, 좋아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것을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히 뭘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지금까지는 확고한 생각으로 진로를 선택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결정의 시기에 고민과 선택을 자기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결과는 신 밖에 모르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한 길이 후회가 없는 유일한 길 인거죠.”

12

행복한 안무가를 꿈꾸는 전남 한빛고등학교 졸업생

행복이란,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현대무용수

강요섭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남자 현대무용수
- **하는 일은?** 프리랜서로 공연하며 학생 레슨 등의 예술 활동 중
- **꿈을 이룬 과정** 한빛고등학교(대안학교)→강원대 무용학과→대학원(현대무용)→국립 현대무용단→프리랜서 활동
- **장래 포부** 자신의 창작 안무로 무용단을 꾸리고 외국에 작품을 알리는 안무가가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행복이란,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강요섭

현대무용수



대안학교인 ‘한빛고등학교’를 졸업한 강요섭씨는 고등학교 시절 활동한 댄스 동아리에서 무용을 접하게 된다. 남들보다 다소 늦은 고3 때 무용 입시를 준비한 그는 무용학과에 진학해 현재 프리 현대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늦은 시작이었으나 춤추는 것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들려준 인생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대안학교에 진학한 친형이 부러웠어요

전라북도 순창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요섭씨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본래 성격은 밝고 개구쟁이였지만 낮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요섭씨와 형제들에게 자신을 이어 목회자가 되란 말 대신 ‘꿈과 비전을 크게 갖고 살라’는 말을 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는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꿈이 많은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처럼 그 역시 중학교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 요리사도 되고 싶기도 했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으며, 피아노를 쳤을 당시엔 지휘자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한 살 위의 형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한빛고등학교에 입학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대안학교의 자유로움에 흥미를 느꼈다.

“중학교를 다닐 때 머리를 스포츠 헤어로 해야 하는 획일화된 규칙 같은 게 너무 싫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절에 형이 대안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열린 교육을 원하셨던 아버지가 대안학교 설립 배경이나 선생님들을 알고 계셨던 한빛고등학교를 추천받아 형이 먼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시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

형을 따라 요섭씨가 입학한 ‘한빛고등학교’는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대안학교였다.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배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좋았던 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많아졌던 거예요. 학생 때는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하지만 늘 가까이 있는 만큼 폭력 문제도 간과할 순 없었죠. 그런데 한빛고등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같이 해결을 했어요. 문제를 두고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혼내거나 정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열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잘못된 사람이 직접 나와 공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대자보 같은 것도 붙이구요. 그 과정 자체가 무척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에서 무용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 그의 꿈은 다시 한 번 바뀌었다. 중학교 때 품었던 지휘자의 꿈이 작곡가로 바뀌었고, 남들보다 좋았던 기초 체력을 살려 운동 쪽으로 진학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어중간하던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앞으로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대학 진학이라는 큰 방향은 정했으나 적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로가 너무 막막했어요. 음악을 하려면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야 하는데 어중간한 실력이었고, 공부도 중간, 운동도 어중간 했거든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길은 뜻하지 않게 열렸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던 한빛고등학교에서 그 역시 여러 동아리 활동을 경험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 동아리를 만들어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등 학교생활에 열심이었지만, 그 중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건 워십 댄스(찬양율동) 동아리 ‘제네시스’였다.

“저희 형제들 모두 H.O.T나 젝스키스 같은 방송 댄스를 쳤었죠. 저도 형들을 따라 춤추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동경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워십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무용에 눈을 떴죠. 또 형이 고3때 무용을 시작해 대학을 무용과로 진학했어요. 제가 고3이 되면서 형의 공연을 보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운동신경도 있고 피아노를 쳤었으니 음악성도 있고 율동 동아리에서 활동도 했었고. 그런데 열정이 생겼어도 걸으론 내색을 못했죠.”

무얼 해도 어중간하다 생각했던 그의 재능들이 합쳐져 무용이란 적성을 만났지만 그 길을 무작정 걸어가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서포트가 필요한 무용을 하기엔 그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가 무용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고민할 때, 형의 언질로 부모님이 그 역시 무용에 뜻이 있단 걸 알게 됐다. 꿈과 비전을 내내 강조했던 부모

님은 그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무용과 진학 준비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입시를 준비한 그는 결국 강원대학교 무용학과에 진학했다.

뒤처지고 싶지 않단 절실함으로 앞만 보고 달렸죠

“어렵사리 진로를 춤으로 정하고 실제로 시작한 시간은 수능을 본 이후였어요. 대학 실기고사로 2분짜리 작품을 연습해서 시험을 봐야 했죠. 학교를 들어가서도 남들보다 많이 뒤쳐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제게 절실함을 주었고 그 절실함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대학생활이 좋다, 나쁘다 리는 이런 느낌을 가질 새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는 ‘전국 무용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시, 도에서 대표를 뽑아 대표들끼리 경합을 하는 큰 규모의 경연대회에 처음 나간 그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나이도 어렸고 무용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기에 선생님들이 수많은 훈련을 시켰죠. 준비 과정 전반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연을 끝내고 나니 많은 관중들이 제게 박수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후 받은 박수갈채는 몸에 전율을 흐르게 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같은 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무용 분야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학위 취득과 군 문제를 고민한 결과였다. 20대의 남자 무용수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군 입대에 대한 고민이다.

쉬지 않고 신체를 단련해야 하는 무용수의 특성 상 군 입대를 통한 약 2년의 공백은 무용수의 커리어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남자 무용수들을 위한 해결책은 공인된 국제무용대회에 나가 수상을 통한 병역 특례(군 면제)였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대회 메달 획득으로 군대를 면제 받듯이, 무용 역시 공인된 국제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학원 졸업 후엔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요섭씨는 2010년 열린 ‘제7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컨템포러리 무용 시니어 부문에 참가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무용올림픽으로 알려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그는 영예의 2위를 차지하며 1, 2위에 한해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도 함께 얻었다. 무용 커리어가 중간에 끊길 지도 모르는 고민은 없어졌지만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연예술계통은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무용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몸으로 예술을 표현한다는 화려한 면이 존재하는 반면 학연, 지연, 혈연,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지방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나왔어요. 민감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학벌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크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긴 해도 현재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석사 학위 취득 후, 그는 국립 현대무용단에 입단했다. 월급이 나오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는 안정된 직장이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일반 회사처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계약 등 계약 기간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국립 현대무용단과의 계약 종료 후, 그는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사람들에게 저를 계속 어필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걸 SNS를 통해 알리고 지인들이나 선생님들, 공연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스케줄을 짜나가야 되죠. 스스로 공연기회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용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있던 그는 뮤지컬 주연에 캐스팅 되어 연습을 준비했던 적도 있다. 두 달씩이나 연습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던 제작사의 문제로 결국 뮤지컬 공연은 무산됐다. 얼마 전, 결혼을 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의 무용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저는 경험주의자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경험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조금은 불안정한 삶을 유

지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창작 작업은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과정들은 정말 힘든데,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힘들었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기분이거든요.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이거다’라는 막연한 느낌에서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면 인생을 바꿀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그는 ‘열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열정이란 것은 요셉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쌓여온 것이다. 그는 요즘 학교들이 입시위주의 학업에 치중되어 있는 점이 학생들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 지적했다.

“제가 한빛고등학교를 다닐 땐 너무 좋았고 자유로웠어요. 선생님과 의 관계도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자율적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면서 찾게 되었어요. 직접 해보야 나에게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백번 말하고 듣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기회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해요.”

안무 분야로 발을 넓히는 게 목표예요

무용 안무자는 무용수들에게 동작을 주고 구성을 하고 무대를 꾸며 공

연을 올리는 연출자이다.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라 말하는 요섭씨는 살면서 느낀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일이 스스로의 안무 창작에 큰 경험으로 쌓이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무용을 한 것에 비해 경험이 많지 않다 느낀 그는 여건이 되면 안무법이나 연출법, 안무 테크닉 등을 배우기위해 유학을 떠나고 싶어 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가 되어 한국의 무용을 외국에 알리고 싶은 것이 그의 향후 목표였다.

무용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범위가 좁은 대한민국은 무용 분야에서는 변방국가다. 그러나 무용 공연이 열리면 찾는 관객이 한정된 한국과 달리 외국은 무용에 대한 위상과 지원이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무용가에 있어 선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저만의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무용수를 뽑아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그 무용수들에게 적당한 급여를 주는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행복이란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어요

유명한 안무가가 되어 무용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인생에 있어 경험을 쌓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한 것’ 이었다.

대안 학교가 갈 곳 없는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란 인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며 그는 안타까워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만큼 공부, 교우 관계, 사제 관계 등 모든 것이 좋았고 그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좋은 대학 진학을 해서 高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루트에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 탓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13

최연소 공채 개그맨이 된 경주화랑고등학교 졸업생

타고난 개그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다.



개그맨

김진

- **누구의 이야기?** 스물 한 살의 나이로 KBS의 최연소 공채개그맨이 된 대안학교 졸업생

- **하는 일은?**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에서 레크레이션과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

- **꿈을 이룬 과정** 대안학교 화랑고등학교 입학→열아홉의 나이로 S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치렀으나 실패함→스물한 살 때 KBS 20기 공채 개그맨 (최연소 개그맨)이 됨→〈개그콘서트〉, 〈폭소클럽〉 등의 개그프로 프로그램에 출연→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졸업→서울예술종합학교 졸업 →현재 행사 전문 MC로 활동하며 강연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음

- **장래 포부** 개그맨으로 다시 방송 무대에 서는 것과 예술대안학교와 틱 장애 협회를 만드는 것

- **그의 한마디** 꿈은 가지되,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

김진

개그맨



2005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김진씨는 그 해 나이 스물 하나였다. 개그우먼 신봉선과 함께 공채 20기에 당당하게 합격한 그는 KBS 역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개그맨이었다. 그가 개그맨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년 전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축제 날 MC로 맹활약한 후부터였다.

틱 장애로 인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맞서 스스로를 ‘못된 아이’로 만들어가다가 스스로 선택한 대안학교라는 길에서 참스승을 만난 후 개그맨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활기찬 그의 성격만큼이나 흥미로웠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간디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중학교 시절 김진씨는 조금 독특한 아이로 통했다. 미술을 좋아하던 그가 아버지의 반대로 더 이상 미술에 꿈을 둘 수 없게 되고, 또 그 무렵 ‘틱 장애’가 찾아오면서 그는 스스로를 ‘못된 아이’로 만들어야 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여지는 ‘틱 장애’ 증상으로 인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당시 그는 그런 사람들의 무신경한 말과 태도에 화를 내거나, 주먹으로 맞서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다.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세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유학 보내려고 하셨고, 아버지는 유학을 반대하셨죠. 저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아이는 사고를 겪을 수 있다고요. 그 때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날 이후 그는 간디학교에 다니겠다고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지만, 쉽게 허락받지는 못 했다.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 간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셨던 그의 아버지는 교육청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학교는 없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인문계 대안학교가 11개 정도 있었고, 간디학교 같은 학원이 23개인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교육부에 계신 친구 분께 간디학교에 대해 알아

봐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분으로부터 앞으로 대안학교 붐이 일 것이니 아들이 원한다면 보내라는 말씀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릴 대안학교 설명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죠.”

대안학교 설명회에 다녀온 그의 부모님은 그의 뜻대로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간디학교가 아닌 화랑고를 추천하셨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안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싶었던 그의 바람과는 달리 화랑고는 서울에서 가장 먼 경주에 있는 학교였다. 그는 서울에 자주 올라오지 않아야 동네 친구들과 말썽을 덜 피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장 먼 학교를 추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대안학교 1세대는 천재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 유학을 다녀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는 아이들, 그리고 왕따나 문제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선생님들 기준으로 문제아 그룹에 속했죠. 장난도 많이 치고, 애들이랑 치고 박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화랑고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저를 그냥 밝고 예쁜 학생으로 대해주셨죠.”

화랑고에 들어간 이후에도 김진씨는 여전히 말썽을 피우는 ‘못난 아이’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담임선생님이셨던 황인랑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엇나가려고 하는 그에게 벌을 주시거나

소리를 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쓰레기를 버리면 보통 주우라고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본인인 직접 주우시면서 저한테 ‘진아 내가 치울게. 앞으로는 많이 버리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다음부터는 죄송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화랑고의 선생님들은 진씨에게 체벌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었다. 시내 애들과 싸워 파출소에 있는 그에게 선생님은 나무라는 대신 상대방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막무가내로 반항심을 드러내며 학교생활을 하던 그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학교에는 김진씨가 지금의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게 하신 분도 있었다. 바로 서중호 교장선생님이다.

“저는 사람을 웃기는 능력을 타고 난 사람이니까 개그맨이 되거나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평소 선생님은 제게 꿈이 뭐냐고 묻지 않으셨지만 제가 연예인을 꿈꾼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에게 ‘진아 연예인이 되어 우리 학교를 빛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보기에 네가 너무 잘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도와주시겠다면서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아버지는 연예인이라는 꿈을 응원해주는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셨다. 선생님은 오히려 그와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는 아버지를 나무라시며 보란 듯이 그에

게 축제 MC를 맡기셨다. 축제 MC는 레크리에이션과를 다니고 있던 졸업생이 할 예정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이 맡아야 했지만 당시 2학년이었던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지자 학생들은 몹시 언짢아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MC를 맡기 위해 축제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졸업생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고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사회자를 맡는 것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전부 설득해주셨고요. 제가 개그능력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었다니까요. 모두가 뒤집어졌죠.”

텔레비전에 나오면 졸업하기로 교장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축제를 계기로 개그맨의 자질을 인정받은 김진씨는 그 때부터 개그맨의 꿈을 키워갔다. 3학년이 된 그에게 교장 선생님은 1학기만 다니고 여름방학부터는 출석을 대체해줄테니 연기학원에 다니라며 그를 응원해주셨다. 연기학원을 다니며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된 그는 학원 생활에 싫증을 느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던 그는 고민 끝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졸업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인터뷰나 뉴스에 나오는 것 빼고 방송에 출연한다면 졸업장을 주시겠다고 혼

꽤히 허락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면 졸업을 시켜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죠.”

막상 약속을 했지만 그는 방송에 출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그 때 운명처럼 그에게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신인 코미디 연기자를 찾는다는 이메일이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부 도착한 광고 메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곧바로 접수했다.

“저는 당연히 뽑힐 줄 알았어요. 그저 사람을 웃기면 뽑힐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험장에서 다른 개그맨 지망생들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저는 떨어질 것이라는 것어요. 저는 달랑 수건이랑 사이다 두 개 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뼈에로 전신분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리어카에다가 쓰레기만 한 가득 싣고 왔고...,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때 뽑힌 사람들이 김신영, 김태현, 윤택, 김형인이예요.”

그는 개그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중학교 선배와 친구였던 개그맨 홍동명이었다. 홍동명 씨는 그에게 함께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홍동명 형이랑 KBS코리아 채널의 <한반도 유머총집합>이라는 프로그램에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대본을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올려서 통과되어야만 방송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때 배웠죠. 그러는 사이 4개월이 지나 고3 9월이 되었어요. 두 달 안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줄

업을 못 하는 상황이었죠. 불쌍해서라도 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분짜리 코너를 만들었어요. ‘번데기쇼’라고 쫄쫄이 입고 나와 하는 개그였는데 운 좋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10월 방송이 나가기까지 그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오신 햄버거를 나눠먹는 시간인 것처럼 속이고 전교생을 모은 그는 자신이 나오는 방송을 모두에게 보여줬다. 방송 촬영 후 PD님에게 부탁한대로 그가 등장하는 모습에 ‘경주 화랑고등학교 재학중’이라는 자막이 떴다. 인기리에 첫 방송 시사회를 마친 그는 약속한 졸업장과 함께 표창장을 받으며 화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만

방송에서도 더 많이 찾아뵙고 싶어요

김진씨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백제예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등 7개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열아홉의 나이로 개그맨 시험을 봤던 그를 졸업시켜 홍보효과를 누리고 싶었던 여러 대학에서는 그를 장학생으로 졸업시켜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한반도 유머총집합>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게 된 PD님의 제안으로 그분이 교수님으로 계신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에 들어갔다.

“선배가 있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그 대학의 1기로 들어갔어요. 등록금도 17만원만 내고 졸업했죠. 지금 3년제인데 당

시 2년제였던 인덕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또 장학생 제안을 받고 다녔어요. 그렇게 두 개의 대학을 나왔어요. 등록금도 거의 내지 않고서요.”

대학교 2학년, 스물한 살의 나이로 156대 1의 경쟁을 뚫고 KBS 역사상 최연소 공채 개그맨이 된 그는 사회 경험이 없었던 탓에 방송에서 살아남는 법을 미처 알지 못했다. 군대에 다녀오니 그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는 방송활동은 왕성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행사전문 MC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방송에서 1년은 10년과도 같아요.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복잡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나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방송을 쉬면 그냥 새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지금 <폭소클럽>이나 일요일 아침에 하던 복권 당첨 프로그램인 <쇼 행운열차> 이런 예능프로그램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 같은 개그맨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행사 MC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하는 일은 워크숍, 입소식, 환영의 밤 등의 행사에서 레크레이션과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는 남양주시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금학산 관광농원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다녀왔다. 최근엔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가로써도 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상담코칭심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강연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매주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과 비교하면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회사원들에 비하면 또 적은 수입은 아니에요. 돈벌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도 저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꿈도 이루었고요. 그렇지만 방송을 포기한건 아니에요. 재기해야죠.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웃음을 드리고 싶거든요. 계속 노력할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반항심 넘치던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은 대안학교 화랑고등학교의 생활의 영향이었다. 그는 화랑고에서 생활하며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로 소록도 봉사활동을 꼽았다.

“14박 15일, 2주일 정도 전교생이 다 함께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이라서 그곳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기도 하고 눈이나 코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소록도에 들어가면 울면서 도망을 가요. 함께 별초도 하고 돼지우리도 치우면서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손가락이 없는 분이 고맙다며 힘겹게 박카스를 따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죠.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좀처럼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다녀요.”

지망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려하지 마세요

“꿈은 가지되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하죠. 제가 연예인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노래를 해보라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마이크도 없어요?’,

‘음악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는데’라는 말을 해요. 이런 친구들은 연예인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는 영원히 ‘지방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방생’이라는 이름에 숨어서는 안 돼요.”

김진씨는 방송연예과, 연극영화과, 영상영화과 등 다양한 연예계와 학과 졸업생이 해마다 만 명씩 졸업하는 상황에서 꿈만 꾸는 지방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가수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0위 안에 들어가 겨우 데뷔가 가능하고, 그렇게 신인이 된 가수들 중에서도 인기를 끌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은 외면한 채 최소한 오디션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연예인을 꿈꾼다고 하는 친구들을 그는 걱정했다.

“기획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명함주면서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꿈을 꾸면서도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데뷔하는 친구들은 운이 좋은 것이고 자신은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실력이 있다면 벌써 데뷔하고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인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돈도 사람도 인기 에 따라 있었다가 사라지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이크만 있으면 2~3시간 사람들을 웃고 떠들게 만드는 재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만큼 많은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인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예술대안학교와 틱 장애협회를 만드는 것이예요

개그맨의 꿈을 이룬 그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꿈은 연기, 노래, 무용 등 예체능 중심의 예술대안학교를 만드는 것과 틱 장애 협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틱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없어요. 특히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법이 있는 것에 반해 틱 장애인은 일할 기회를 얻기조차 힘들죠. 틱 장애인 중에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고통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목을 자꾸 움직이게 되는 그는 목 근육의 노화가 일찍 찾아와 앉아있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틱 장애의 고통은 알지 못한 채 마치 잘못된 습관쯤으로 알고 개인의 의지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틱 장애인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틱 장애인 협회를 만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4

요리사에서 프렌차이즈 카페 점주가 된 경주 화랑고 졸업생

실패를 경험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엔젤리너스 점주

정세진

- **누구의 이야기?** 선생님을 꿈꾸다가 좌절하고, 요리사로 경력을 쌓다가 엔젤리너스 점주가 된 대안학교 졸업생

- **하는 일은?** 바리스타로서 커피를 내리는 일, 손님을 맞이하며, 전반적인 매장을 관리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대전에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권유받음→1학년 2학기 부터 경주에 있는 대안학교 화랑고에 다님→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영문과에 진학→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영문과 자퇴→조리학과에 진학→미국에 있는 호텔에서 1년 간 인턴십 →귀국 후 서울에서 3~4년 간 요리사로 활동→요리사 일에 회의를 느껴 잠시 휴식 차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지인을 통해 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해 배움→퇴직한 아버지와 권유로 엔젤리너스 점주가 됨

- **장래 포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

- **그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프렌차이즈 카페 <엔젤리너스>의 점주가 된 정세진씨는 대안학교 화랑고등학교의 졸업생이다.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그녀는 선생님들을 보며 모교의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요리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나섰고, 또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닌 기회를 따라 삶을 개척해온 그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젊음이 무기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화랑고에서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떠오르는 것은 재미있는 기억뿐이죠

대전의 한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던 세진씨는 한 학기를 다니고 전학을 가야했다. 담임선생님께서 전학을 권유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대덕고에는 맞지 않는 학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교인이신 어머니는 그녀에게 경주의 화랑고등학교를 추천하셨다. 그렇게 그녀는 1학년 2학기부터 대안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대안학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는 모험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죠. 기숙생활을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힘들었던 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화랑고에 다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기억만 떠오른다고 했다. 수업에는 다소 소홀했지만 여행, 봉사 등의 활동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녀였다. 그녀는 막내 특유의 애교 많은 성격으로 전학을 오기 전과는 달리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국회 선생님과도 인연은 특별했다.

“국회 선생님과 2학년 때 담임선생님 그리고 한미리는 친구와 넷이서 놀러가거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국회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선생님과 지내며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어요. 대안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죠.”

그 당시 그녀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화랑고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그녀는 망설이기보다는 우선

결정하고 행동한 다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찾는 마음의 여유와 결단력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실패도 했을 것이고, 좌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요. 실패를 한 번 경험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교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길을 찾았죠

“대안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것과 과정이 비슷해요. 임용고시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 교직이수는 해야 하죠. 선생님들은 ‘세진이 네가 들어온다고만 하면 누가 안 된다고 하겠냐’며 격려해주셨죠.”

자신의 모교인 화랑고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세진씨는 영문과가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었다. 대안학교 전형이 있었기에 입학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은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았다. 선생님이라는 꿈이 있어 시작한 공부이기에 교직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할 자신도 없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던 그녀는 결국 자퇴를 하고 전문

대학의 조리학과에 진학했다.

“조리학과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보시기에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영문과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내심 제가 조리학과를 선택하기를 바라셨죠.”

지금처럼 인터뷰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절, 그녀는 선배로부터 인턴쉽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지역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서 1년을 보내는 조리과 연계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12월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굉장히 큰 카지노 호텔이었어요. 호텔 안에만 레스토랑이 열 개가 넘게 있었죠. 브런치 카페도 있고, 뷔페도 있고, 프렌치, 이탈리아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레스토랑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레스토랑을 돌아가며 근무를 했어요. 이곳에서 한 달, 다른 곳에서 한 달 이런 방식 으로요.”

그녀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조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면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미국의 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지나면 그 만큼의 돈을 더 주었고, 쉬는 시간도 있었다. 2학년 방학 때 그녀가 경험했던 신라호텔에서의 일과 비교하여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

“우리나라는 설거지, 청소, 양파 깎기 같은 허드렛일만 시켰어요. 그나마 저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었죠. 설거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깐요. 미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요리를 바로 시키더

라고요. 1년 동안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여러 직장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세진씨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주로 양식을 요리했다. 몇 번 직장을 옮기기는 했지만, 그녀는 서울에서 3~4년을 요리사로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존경할만한 셰프를 만나기도 했다.

“깨끗한 주방에서 정직하게 요리하는 분이었어요. 그 분은 본인이 셰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직접 걸레질을 하셨어요. 일을 할 때 그분의 마음가짐을 정말 좋아했었죠. 지금의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주방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주방이었죠. 소개받아서 갔던 곳이었는데 셰프가 나쁘다기보다는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했고, 셰프와의 인연으로 일하고 있는 다른 요리사들은 그런 그녀에게 텃새를 부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그녀를 존중해주지 않았다. 셰프는 비쁠 때만 잠시 와서 거들뿐 거의 주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 들어가 청소하고 감자만 깎았어요. 스테이크 집이라 청소할 때 엄청 많은데, 깨끗하지가 않아 자꾸만 예전에 있었던 레스토랑과 비

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방에 정이 떨어지니까 이쪽 일에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요리사 생활에 지친 그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할 생각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다. 그 때 그녀의 마음 한 쪽에는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요리사를 그만둘 생각이라기 보다는 그녀는 나중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커피를 배웠다. 그렇게 <엔젤리너스>에 취직한 그녀는 사장님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다.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셔서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본인 매장을 저한테 맡기시면서 일을 시키셨으니깐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 인건비 벌자고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보람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전에서 엔젤리너스만 네다섯 개를 운영하던 분이었고,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부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때마침 퇴직을 하신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 대전 외곽에 <엔젤리너스> 매장을 새로 열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가 프렌차이즈 카페의 점주가 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녀는 여느 직원들처럼 커피도 내리고, 손님도 맞이하고, 전반적인 매장 관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 가게이다보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한편으로는 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죠.”

헛된 경험은 제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뭐가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무언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왔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이를 여건까지 마련되면 주저 없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듯이, 지금의 가게도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제의를 받았어요. 그 시기에 제게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가진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제 앞으로의 인생 목표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세진씨는 지금껏 하고 싶은 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반드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생에서 버려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과거의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헛된 경험으로 여길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전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상관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젊음이 무기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경험을 해보세요.”

15

여러 섳길을 거쳐 자신만의 창업을 꿈꾸는 경주화랑고등학교 졸업생

대안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창업가
한성호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 후 간호사를 하다 그만두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남자
- **하는 일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화랑고등학교(대안학교)→소록도 나병 환자 봉사 활동→간호학과 진학
→병원 응급실 간호사→프랜차이즈 지점 총 실장
- **장래 포부** 자신의 가게를 창업하는 것
- **그의 한마디** 대안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한성호

창업가



강원도 출생의 한성호씨는 대안학교 ‘화랑고등학교’의 졸업생이다. 중학생 때 이미 키가 183cm였을 정도로 덩치가 컸고 싸움을 자주 했던 그는 이른바 문제아로 불리는 청소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소록도로 봉사 활동을 갔던 그는 그 체험을 통해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소명을 갖게 됐다. 간호학과에 진학해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서 4년간 일을 한 후, 환자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그는 간호사를 그만두었다. 현재 친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총 실장으로서 관리와 운영을 돕고 있는 그가 들려준 그동안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아버지가 대안학교에 보냈죠

중학교 1학년 때 신장이 183cm이었던 성호씨는 사고를 많이 치는 문제 학생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는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는 어느 여름날 그에게 경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단순히 여행인 줄 알고 따라 나선 그가 당도한 곳은 대안학교인 ‘화랑고등학교’의 모의면접 ‘여름학교’였다.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싫었기에 진학을 거부했지만 결국 면접을 보게 됐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술, 담배, 학교 폭력 등에 대해 자유분방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배들이 때릴 수도 있는데 맞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은사가 된 분이 ‘넌 이 학교로 와야 겠다’ 는 말을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대안학교는 가기 싫었어요.”

부모님은 진학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고등학교만 나오라고 했고, 결국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화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요즘엔 생태지향형, 인문계열, 자연지향형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대안학교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호씨가 ‘화랑고등학교’에 입학한 90년

대 대안학교의 설립 목적은 범죄를 일으켜 소년원에 갔다 왔거나 일반 고에 진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에 다시 환원 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가 다닌 ‘화랑고등학교’는 바깥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을 만큼 학생들의 자율이 중요시 되는 한편, 선후배 관계가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그는 학교에서 강압적인 선후배 관계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다. 고학년의 규율이 절대적인 엄격한 계급 사회 속에서 그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선생님과과의 관계였다.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학생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행동했다.

“학교 자체가 지각이나 말썽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를 나오는 것에 큰 의미를 뒀어요. 마음공부나 텃밭 가꾸기, 요가처럼 일반 학교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도 학생들이 지친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죠.”

학생들의 용돈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며 필요할 때 마다 내주는 시스템 역시 학생과 선생 사이를 단순히 사제지간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으로 느낄 만큼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그 역시 1, 2학년 때 자신의 담임이었던 이국희 은사를 따랐다. 공부에 뜻이 없던 그에게 선생님은 계속 동기부여를 했다.

“어릴 때 좀 놀다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공부를 찾게 돼요. 선생님이 공부를 계속 시켜서 처음으로 시험공부를 좀 하고 잤어요. 그 다음 날 시험을 쳤는데 3등을 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 그는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공부하기 시작했다. 후에 그가 대학 지망 학과를 고민할 때 정보를 알아봐 준 사람도, 운동엔 비전이 없다며 간호과를 지원케 한 사람도, 학교에서 사람들과 엇나갈 때 소록도로 보낸 사람 역시 그의 은사님이었다. 그는 은사를 스승이기도 하지만 마치 친구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원래는 간호사의 꿈이 없었어요

엄격한 선후배 관계에 있어 그는 선배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 후배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선배와 큰 트러블을 일으킨 사고로 학교에선 성호씨에게 무기정학을 내렸다. ‘화랑고등학교’의 무기정학은 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 활동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무기정학을 받은 그는 나병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다. 소록도에서 폐쇄 병동 환자들에게 봉사하며 지낸 4개월이 끝나갈 때 쯤 그는 의무로 했던 봉사에서 보람을 느꼈다. 사람을 돕는 것에서 성취감을 갖게 된 것이다.

“얼굴이 썩어서 입이 아닌 관을 통해 식사 하시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양말을 뜨려면 2년이 걸리는데 제가 떠나기 전 날, 저에게 양말 한 켤레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뜨신 거였죠. 그걸 받고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 운동을 했기에 막연히 대학에 가게 된다면 경호학과나 생활

체육과를 쓰려 했던 그는 봉사 활동을 계기로 진로를 간호학과로 돌리게 되었다. 은사 덕분에 공부를 해 내신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그는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경호과에 입시 원서를 제출했다.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약간의 편견을 주는 직업이지만 그가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는 더 심했다. 그 역시, 친구들의 비난과 자신이 과연 여성 위주의 간호사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간호과 지원을 망설였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찬성과 운명 같은 입시 결과가 결국 그를 간호과에 진학하게 만들었다. 간호학과의 커트라인 점수가 경호과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호학과 합격, 경호과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간호사란 직업에 지쳐갔죠

전문대 간호과에 진학한 성호씨는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간호사로써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응급실은 환자의 생사를 제일 처음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긴장 상태로 대기해야 했지만 그는 학생 시절 간호 실습 때부터 오로지 응급실 근무만을 생각했다. 활동적이고 다소 성미가 급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서 얻는 성취감을 중요시여기는 성격 때문이었다. 호전적인 성격의 그지만 간호사 근무 4년차가 되었을 때 간호사란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

“병동 같은 경우엔 준비된 환자를 받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케어를 하지만, 응급실은 스트레스가 많았죠. 일단 죽어 나가는 사람을 계속 본다는 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죽음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쁘니까 조금 아픈 사람보다 많이 아픈 사람을 위로 생각하고, 환자를 그냥 빨리 치워야 하는 일거리로 보기도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여동생의 결혼으로 생긴 집안일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던 가운데 자궁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간호를 직접 하기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다.

“간호사를 하게 되면 끝을 봐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 좋은 특징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마음이 항상 좋지 않았죠.”

나중에 제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예요

성호씨가 어머니 병간호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접어둔 그 때,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자신이 창업한 식당 관리를 부탁하는 전화였다. 같은 중, 고등학교 출신의 고향 친구 1명과 성호 씨의 군대 후임이 동업을 해 열게 된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다. 간호사를 그만두기 1년 전부터 창업의 꿈을 품고 있었던 그였기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전국 10개의 점포 중 오픈한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성호 씨는 총 실장

을 맡게 됐다. 대안학교에서 쌓은 인간관계와 인간 관리 노하우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장부와 재정 관리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로 자주 못 오는 사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지금, 그는 이 지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대한의 도움을 줄 생각이다.

“이 친구들은 서로 계속 동고동락 한 사이이고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은인이기도 해요. 거기에 어차피 나중에 제 가게를 창업할 생각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배우기도 하는 지금 일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해산물 요식업을 생각 중인 그는 창업 아이টে임을 계속 연구하며 소비자에게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창업을 준비를 차차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대안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예요

“대안학교에서 저는 선후배 관계, 상하관계, 평등한 관계 등 다양한 사회를 경험했어요.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도 많이 배웠죠. 나밖에 모르던 상황에서 남을 계속 지켜 봐야하는 입장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호씨는 선생님들이 강압적인 선후배 관계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실제 사회의 냉혹함을 알려주려는 의미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덕분에 그는 그곳에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실함과 첫인상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다. 아마 대안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왔거나

부모와의 연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는 대안학교가 네모처럼 잔뜩 모
나있던 자신을 등글게 만들어 준 곳이라 감사와 신뢰를 표했다.

목표를 향하는데 마주치는 셋길을 겁내지 말고 부딪쳐야 한다

성호씨는 인생에 있어 최종 목표를 바라보기 보단 자기가 현재 노력
할 수 있는 목표들에 집중했다. 그 목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계를
이루어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단 얘기다.

“사람들은 대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며 큰 꿈을 가져야 큰 사람
이 된다고 하지만 저에겐 별로 와 닿지 않아요. 제 현재 목표는 부모님
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노후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일이라면 그 일의 끝까지 도달한 뒤엔
또 다른 목표를 향한 또 다른 단계가 생기겠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
표가 단계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떤 길로 새고,
또 다른 길로 새고, 여기저기로 새지만 어차피 자기가 가는 도착점은 존
재하겠죠. 살면서 무수히 많은 셋길을 걸을 텐데 겁내지 말고 부딪쳐 봤
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만 다 한다면 결국 도
달하고 싶은 도착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의 꿈과 만나다

만든 사람들

기획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최승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사무관 김아영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주무관 이금희

연구 / 집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송창용·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신민정·양성은·양정은·이윤진

동아사이언스 과학전문기자 고희관·김상연·변지민·신선미·염지현·오가희

우아영·윤신영·이우상·이재웅·전승민·최영준

캠퍼스멘토 대표 안광배

좋은정책연구소 대표 이경희

자문

라이스메이커 민영범 대표 / 박종례 작가 / 김지은 작가

